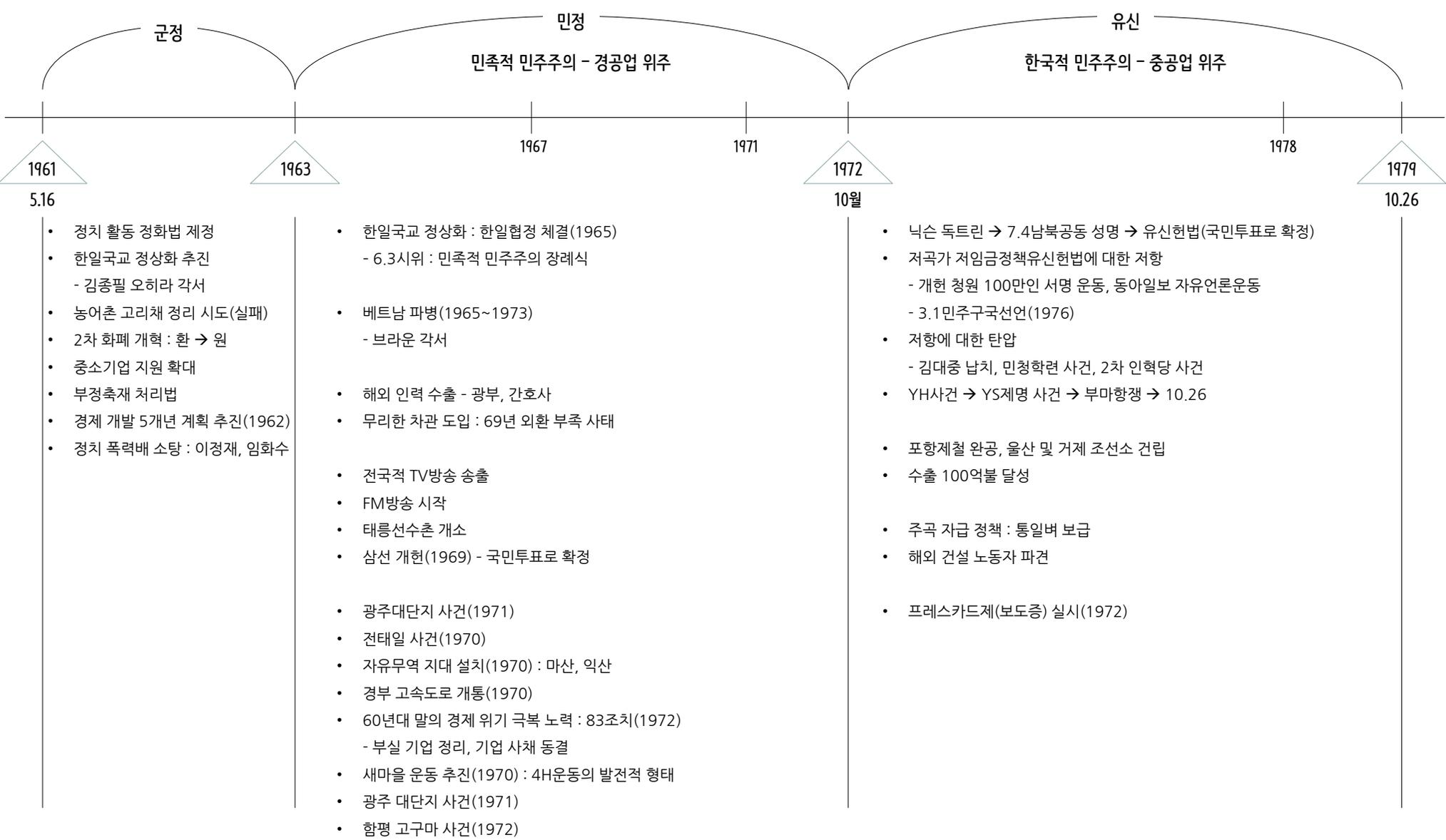


Mr. Ash의, [Hoffnung\_2016]을 위한

# 한국사 집요

# 올해의 시사 - 박정희 대통령의 빛과 그림자



1961

5.16

- 정치 활동 정화법 제정
- 한일국교 정상화 추진  
- 김종필 오히라 각서
- 농어촌 고리채 정리 시도(실패)
- 2차 화폐 개혁: 환 → 원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부정축재 처리법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1962)
- 정치 폭력배 소탕: 이정재, 임화수

1963

1967

1971

- 한일국교 정상화: 한일협정 체결(1965)  
- 6.3시위: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 베트남 파병(1965~1973)  
- 브라운 각서
- 해외 인력 수출 - 광부, 간호사
- 무리한 차관 도입: 69년 외환 부족 사태
- 전국적 TV방송 송출
- FM방송 시작
- 태릉선수촌 개소
- 삼선 개헌(1969) - 국민투표로 확정
- 광주대단지 사건(1971)
- 전태일 사건(1970)
- 자유무역 지대 설치(1970): 마산, 익산
- 경부 고속도로 개통(1970)
- 60년대 말의 경제 위기 극복 노력: 83조치(1972)  
- 부실 기업 정리, 기업 사채 동결
- 새마을 운동 추진(1970): 4H운동의 발전적 형태
- 광주 대단지 사건(1971)
- 함평 고구마 사건(1972)

1972

10월

- 닉슨 독트린 → 7.4남북공동 성명 → 유신헌법(국민투표로 확정)
- 저곡가 저임금정책유신헌법에 대한 저항  
-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동아일보 자유언론운동  
- 3.1민주구국선언(1976)
- 저항에 대한 탄압  
- 김대중 납치, 민청학련 사건, 2차 인혁당 사건
- YH사건 → YS제명 사건 → 부마항쟁 → 10.26
- 포항제철 완공, 울산 및 거제 조선소 건립
- 수출 100억불 달성
- 주곡 지급 정책: 통일벼 보급
- 해외 건설 노동자 파견
- 프레스카드제(보도증) 실시(1972)

1978

1979

10.26

# 올해의 시사 - 을미년 전후의 역사적 사건

1893년

## 보은집회

- 삼례집회
- 복합상소
- 보은집회

1894년

## 고부민란

- 조병갑의 학정
- 만석보 사건
- 전봉준과 농민들의 봉기
- 후임군수 박원명의 무마
- 안핵사 이용태의 재탄압

## 1차 봉기

- 백산봉기
- 황토현 전투
- 황룡촌 전투
- 전주성 점령
- 청군 아산만 상륙
- 텐진조약 발효
- 일본군 인천 상륙

## 전주 화약

- 전주화약 체결
  - 교정청
  - 집강소
- 정부가 청일양국군의 철수 요청
- 일본군의 경복궁 무단 점령
- 청의 지원군 파견
- 청일전쟁 발발

## 갑오 1차 개혁

- 교정청 폐지
- 군국기무처 설치

## 2차 봉기

- 2차 봉기(삼례 집결)
- 논산 집결
- 우금치 전투 패배
- 전봉준 체포
-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

## 갑오 2차 개혁

- 군국기무처 폐지
- 흥범 14조 반포
- 독립서고문 발표

1895년

## 친러 내각

-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
-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 삼국간섭

## 을미 개혁

- 을미사변 (경복궁 內 건천궁)
- 단발령 선포

1896년

## 아관 파천

- 훈생문 사건
- 갑오개혁 체제 종결
- 이완용, 이범진 내각 수립
- 단발령철회
- 의병해산 권고
- 러시아의 고문 파견(재정, 군사)

## 원불교 창시(1916년)

- \* 창시자 : 박중빈
- \* 방향 :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대중화
- \* 추진 운동 : 새생활 운동
- \* 주요 내용 : 남녀 평등, 허례 폐지, 저축



[ 개성 만월대 ]

## [ 관련 언론 기사 ]

만월대는 고려 태조가 송악(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세운 궁궐로, 400여년 동안 고려의 왕들이 정무를 펼치던 정궁이다. 다른 궁궐이 보통 평지에 세워지는데 비해 만월대는 산세를 따라 몇 개의 단지를 이루며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왕이 정사를 보던 회경전을 비롯한 다양한 건조물들이 있었으나 1361년(공민왕 10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소실된 이후 중건되지 못하고 지금은 그 흔적과 유물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남과 북이 이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지난 3일 착공식을 가졌다. 2007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공동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어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만월대 발굴조사 합의는 몇 가지 점에서 이전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11월 말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잡고 남북이 발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 획기적이다. 그동안 발굴조사에서 가장 큰 애로로 여겨지던 시간적 제약을 털어내고, 사실상 지속적 조사가 가능한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우리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북측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발굴단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사업 기간 동안 모두 80여 명의 우리 측 인원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고, 15명 내외의 관계 전문가가 개성공단 내 숙소에서 만월대로 출퇴근하면서 상시적으로 발굴조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남북한 학술교류 방식의 진화라는 측면에서의 의의도 작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쌍방은 서부 건축군 구역 중 왕실의 침전인 만령전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4000~7000㎡ 구역을 조사하고, 전시회와 학술회의를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면기 동북아역사재단 정책실장 칼럼>

## [ 개성 관련 교과서 내용 ]

- 후고구려의 첫 수도(송악)
- 고려의 500년 수도
- 고려 첨성대 설치
- 조선 후기 송상의 주 활동지
- 조선 후기 인조가 개성 중심으로 상평통보(동전)의 통용 실험
- 2000년 6.15남북 공동선언에서 개성 공단 설치 합의

# 올해의 시사 - 백제 유적,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등재



[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

<p>공주 (웅진)</p>	<p><b>문주왕 시기 천도(475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 웅진성(熊津城)과 관련된 공산성(公山城)</li> <li>• 송산리 고분군(宋山里 古墳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식 돌방 무덤, 무령왕릉, 벽화 존재</li> </ul> </li> </ul>
<p>부여 (사비)</p>	<p><b>성왕 시기 천도(538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 사비성(泗沘城)과 관련된 관북리 유적(官北里遺蹟, 관북리 왕궁지)</li> <li>• 부소산성(扶蘇山城)</li> <li>• 정림사지(定林寺址)</li> <li>• 능산리 고분군(陵山里古墳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식 돌방 무덤</li> </ul> </li> <li>• 부여 나성(扶餘羅城),</li> </ul>
<p>익산</p>	<p><b>무왕 시기 익산으로 천도 시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궁리 유적(王宮里 遺蹟)</li> <li>• 미륵사지(彌勒寺址)</li> </ul>



[ 일본 강제 동원의 역사, 하시마섬 ]

## [ 관련 언론 기사 ]

일본 내 조선인 강제노역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일 외교전은 막판까지 치열했다. 한국은 1940년대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명기한 결정문을 얻어냈고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도 거뒀다. 정부는 한일 교섭 끝에 협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한 일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입장이나, 일본 측은 한국의 외교전에 불편한 기색이어서 난관도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외교전은 지난 3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 23곳 등재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화했다. 결정이 확정되는 7월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를 앞두고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19개 WHC 위원국에 전방위 외교전을 펼쳤다.

정부가 특히 집중한 대목은 7곳의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이었다. 이곳에서 5만7,900여명의 조선인이 일하다 94명이 사망한 사실이 있는 만큼 7곳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 그러나 ICOMOS 권고를 무시할 수도 없다는 위원국들의 여론을 반영, 등재 결정문에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담은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한국일보 2015년 7월 6일자 기사>

<p>중일전쟁 이후 (1937년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총동원령(1938)</li> <li>• 지원병제(1938)</li> <li>• 국민징용령(1939)</li> <li>• 산미증식계획재개</li> <li>• 미곡공출제(식량배급제)</li> </ul>
<p>태평양 전쟁 이후 (1941년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도지원병제(1943)</li> <li>• 징병제(1944)</li> <li>• 정신대근무령법제화(1944)</li> <li>• 금속 공출제</li> <li>• 전시 복장 강요: 국민복, 부인표준복(몸빼)</li> </ul>

## [ 관련 언론 기사 ]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목판인 ‘한국의 유교책판’과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유력합니다.

원래 심사 결과는 현지시간으로 6일 오후 발표될 전망이었지만, 중국과 일본의 외교전이 가열돼 최종 결정과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12차 회의를 열어 60여 개국에서 신청한 88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기록물이 등재되면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모두 13개로 늘어납니다.

<연합뉴스 2015년 10월 7일 기사>

## 이산 가족 관련 교과서 내용

<p><b>박정희 대통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남북 적십자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li> <li>- 최초의 민간 회담(7차례 회담 개최 - 성과는 없음)</li> <li>- 1천만 이산 가족 찾기 운동 제의</li> </ul> </li> </ul>
<p><b>전두환 대통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1983)</li> <li>• 남북적십자회담 재개(2차 남북 적십자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기: 북한 수해에 대해 구호 물자 제공</li> <li>- 남북 고향 방문단(1985)의 방문</li> <li>- 최초의 이산 가족 교환 방문</li> <li>-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1985)</li> </ul> </li> </ul>
<p><b>김대중 대통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5 남북 공동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의 이산 가족 서신 교환(2001) :6 00통)</li> <li>- 금강산에서 이산 가족의 정례 단체 상봉</li> </ul> </li> </ul>
<p><b>박근혜 대통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 상봉 추진</li> </ul>

# 꼼꼼히 읽기 - EBS 특강(2016년)

<p>선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석기 중기 - 1석기 1용도(밀개, 굽개)</li> <li>• 구석기 유적지 - 충남 공주 석장리</li> <li>• 중석기 - 잔석기 사용</li> <li>• 신석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은 자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li> <li>- 움집 : 중앙 화덕, 4~5명 거주</li> </ul> </li> <li>• 철기 - 널무덤, 독무덤</li> </ul>
<p>고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군신화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출현, 천손사상, 농경사회(농경의 시작 X)</li> </ul> </li> <li>• 8조 법금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비의 존재, 노동력 및 사유재산 중시, 가부장적 남성 중심 사회</li> </ul> </li> </ul>
<p>부족연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저와 동맹의 공통점 : 연맹 국가로 발전하지 못함</li> </ul>
<p>고구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몽 및 유화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김 - 국동대혈 + 동맹</li> <li>• 태학 설립 및 불교 수용 - 고구려 4세기 소수림왕</li> </ul>
<p>백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기 고이왕 - 한강 유역 완전히 장악, 관등제 정비             <p><i>“내신좌평을 두어 왕명 출납을, 내두좌평은 물자와 창고를, 내법좌평은 예법과 의식을, 위사좌평은 숙위 병사를, 조정좌평은 형벌과 송사를, 병관좌평은 지방의 군사에 대한 일을 각각 맡게 하였다. 6품 이상은 자주색 옷을 입고 은으로 된 꽃으로 관을 장식하며, 11품 이상은 붉은 색 옷을, 16품 이상은 푸른 색 옷을 입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i></p> </li> <li>•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 세력임을 보여주는 유적 - 석촌동 돌무지무덤</li> </ul>

# 꼼꼼히 읽기 - EBS 특강(2016년)

<p>통일 신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신라가 5소경을 설치한 것은 - 수도의 지역적 편중을 보완한 것</li> </ul>
<p>발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해의 중앙 관제 - 3성 6부</li> <li>- 당의 관제의 영향을 받았다. [ O   X ]</li> <li>- 발해의 독자적 특색이 드러나 있다. [ O   X ]</li> </ul>
<p>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 지방군</li> <li>- 5도 : 주현군 + 양계 : 주진군</li> </ul>
<p>조선 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도전의 재상중심정치론과 세종의 의정부 서사제는 논리적으로 일맥상통함</li> <li>• 조선 시대 문과의 구분은? → 소과(생원시+진사시) - 대과(문과)</li> <li>• 노비는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다. [ O   X ]</li> <li>• 조선의 관찰사는 행정, 사법, 군사권을 모두 가졌다. [ O   X ]</li> <li>• 의방유취 - 세종 시절 간행된 의학백과사전</li> <li>• 성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동국통감&gt; 서거정 찬술 역사서 / 고조선~고려 말 / 단군이야기 수록</li> <li>- &lt;동국여지승람&gt; 성종 때의 지리서</li> <li>- 두 책의 편찬 배경 : (1)민족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 (2)중앙집권적 통치 체제 구축</li> </ul> </li> <li>• 이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리학의 이기론 심화 / 일본 성리학 발전에 이바지</li> </ul> </li> </ul>
<p>조선 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작료 납부 방식의 변화 : 일부 지역에서 타조법(정률제) 대신 도조법(정액제) 등장</li> <li>• 조선 후기의 민화 및 풍속화의 등장 →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계층의 확산</li> <li>• 서학의 전래는 자생적(서양 선교사의 전래 X)</li> <li>• 조선 후기의 통신사 - 일본 측의 요청으로 쇼군이 교체될 때 파견됨</li> <li>• 흥경래의 난에는 광산 노동자와 중소 상인들이 적극 참여하였다. [ O   X ]</li> </ul>

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선대원군은 지방관과 토호의 토지겸병을 금지시켰다. [ O   X ]</li> <li>• 초기 개화파(통상 개화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해국도지&gt; 및 &lt;영환지략&gt; 등 해외서적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 해외 지리서</li> <li>- 오경석(역관), 유홍기(의관), 박규수(임오군란 당시 안핵사로 파견) 등</li> </ul> </li> <li>• 갑신정변 개혁 정강 14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시부를 없애고 그 가운데 재능이 있는 자는 등용할 것.</li> <li>-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를 처벌할 것.</li> <li>- 각 도의 환곡을 모두 면제할 것.</li> <li>- 규장각을 폐지할 것.</li> <li>-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할 것.</li> <li>- 그 전에 유배, 금고 된 사람들을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할 것</li> <li>- 4영을 합쳐 1영으로 하고 영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설치할 것. 육군대장은 세자를 추대할 것</li> <li>-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서 회의하고 정령을 공포해서 실행할 것</li> <li>- 정부는 6조 외의 불필요한 관청은 모두 없애고 대신과 참찬이 협의해서 처리할 것.</li> </ul> </li> <li>• 동학농민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발통문 : 고부 농민 봉기의 문서 !</li> <li>- 1차 봉기 : 4대 강령 발표 / 호남창의소 설치 / 균전사 폐지 요구</li> <li>- 고부(1월), 1차봉기(3월), 전주화약(5월), 2차봉기(9월)</li> </ul> </li> <li>• 2차 갑오개혁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제시행 / 7부제 / 23부제 / 훈련대, 시위대 설치 / 교육입국조서 반포 / 한성사범학교 설치 / 외국어학교 관제 반포 / 사법부 독립 - 재판소 설치</li> </ul> </li> </ul>
----	--

<p>근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관파천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정양, 이완용 내각 수립</li> </ul> </li> <li>• 독립신문 정부 지원금과 민간 자금이 합쳐져 창간되었다. [ O   X ]</li> <li>• 원구단, 황궁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제 즉위식 거행, 대한제국의 수립을 대내외에 선포</li> </ul> </li> <li>• 대한 제국의 영토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도 : 간도관리사(이범윤) 파견</li> <li>- 독도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li> </ul> </li> <li>• 황국협회가 독립협회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고종은 박정양 내각을 경질하고 독립협회를 해산하였다. [ O   X ]</li> <li>• 전기 : 최초 전기 설치(1887, 경북궁), 한성전기회사(1899, 최초 전차, 경인선과 동일 연도)</li> <li>• &lt;월남망국사&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남이 망한 것은 우리에게 극기 경계될 만한 일이라……“</li> <li>- 러일 전쟁 이후 일제의 국권 침탈이 급속해 지는 상황에서 계몽사학자들은 위인의 전기를 펴내거나 &lt;월남망국사&gt;, &lt;미국독립사&gt; 등 외국의 흥망을 다룬 책을 번역하였다</li> <li>- 조러밀약설은 언제? 1880년대 중반에 유포 / 그러면 조러통상조약은 언제? 1884년 갑신정변 이전</li> </ul> </li> <li>• 독립협회의 자주 국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 절영도 조차 요구 저지/ 한·러은행폐쇄 / 군사 교련단 및 재정 고문단 철수 / 목포, 증남포 인근 토지 매도 요구 저지 /</li> <li>- 일본: 석탄고(저탄소)기지 반환 관철</li> <li>- 프랑스, 독일: 광산채굴권 요구 저지.</li> </ul> </li> <li>• 전신 : 최초는 1884년 / 서울과 부산 사이의 전신은 1888년</li> </ul>
-----------	--

# 꼼꼼히 읽기 - EBS 특강(2016년)

<p>근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시경 &lt;국어 문법&gt; - 근대 언어학의 용어를 순 우리말로 체계화 - 학부의 산하기관인 국문 연구소에서 활동</li> </ul>
<p>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0년대에는 경무총감이 헌병사령관을 겸임하였다. [ O   X ]</li> <li>• 3.1운동은 만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곳으로 확산되었다. [ O   X ]</li> <li>• 6.10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학생들은 시위와 동맹 휴학의 형태로 저항하였다. [ O   X ]</li> <li>• 만주의 3부 통합운동은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이었다. [ O   X ]</li> <li>• 산미증식계획으로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 O   X ]</li> <li>• 산미증식계획은 애초 일본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O   X ]</li> <li>• 농촌진흥운동은 '자력갱생' 구호를 앞세웠다. [ O   X ]</li> <li>• 농촌진흥운동은 부채 근절 등 정신운동의 형태로도 진행되었다. [ O   X ]</li> <li>• 일본의 관동대지진은 몇 년? → 1923년 !! (주의할 것! 1930년대 아님)</li> </ul>
<p>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성수, 송진우가 주축이 되어 8.15 해방 직후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였다. [ O   X ]</li> <li>• 한국민주당은 임시정부 봉대론을 주장하였다.</li> <li>• 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지부를 설치하였다. [ O   X ]</li> <li>•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을 공포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1949년에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가 남조선노동당의 간첩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 구금되는 국회프락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반민특위에서 활동하던 의원 중 일부가 연루되어 구속되었다.</li> <li>• 박정희 정권은 군정 시기에 농가 부채 탕감 조치를 취했다. [ O   X ]</li> <li>• 노태우 정부 시기에 야당의 주도로 5공화국 청문회가 실시되었다. [ O   X ]</li> <li>•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에 IMF체제를 극복하였다. [ O   X ]</li> </ul>

# 꼼꼼히 읽기 - EBS 완성(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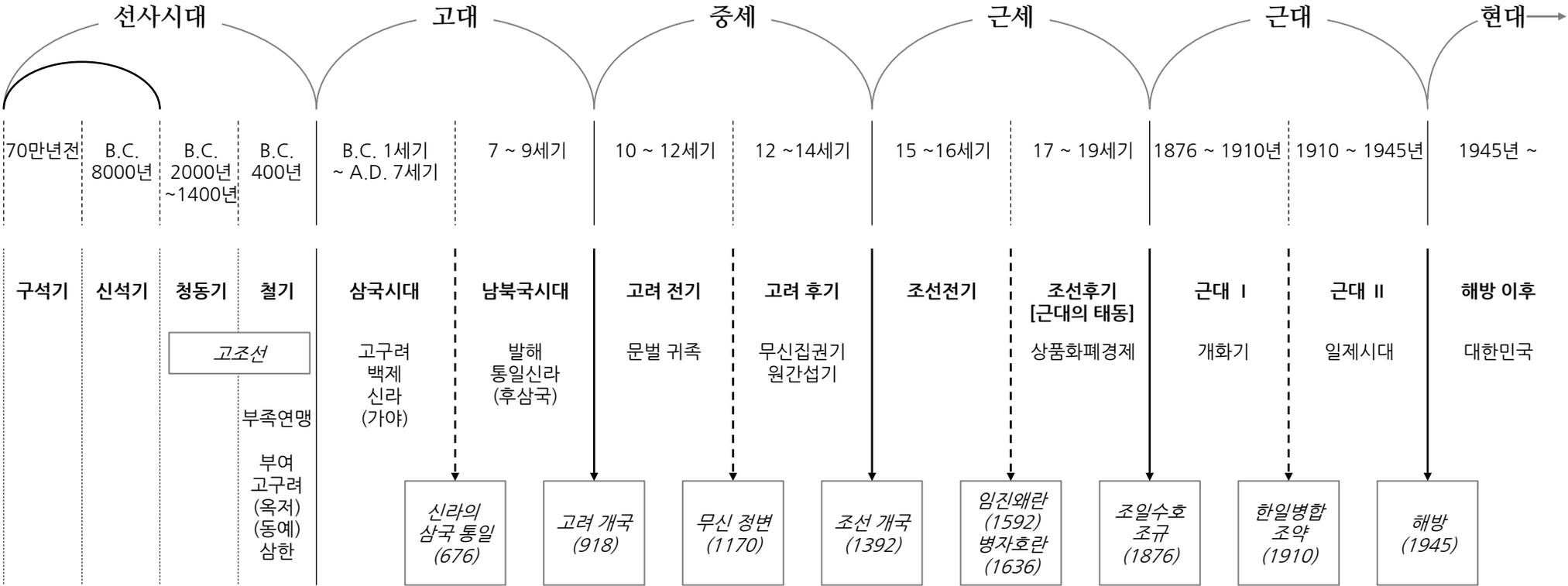
고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조 금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 노동력 중시 / 사유 재산 인정 / 형벌과 노비의 발생 / 가부장적 남성 중심사회 질서</li> </ul>
백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제는 나제동맹을 체결한 이후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했다. [ O   X ]</li> </ul>
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왕은 국학을 설립하고, 9주5소경 체제를 완비하였다. [ O   X ]</li> </ul>
백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묘청은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서경 천도 운동을 펼쳤다. [ O   X ]</li> </ul>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는 송의 제도를 수용하여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다. [ O   X ]</li> <li>고려 시대에는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오르는 경우가 있었다. [ O   X ]</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세기에는 백자 사용이 유행하였다 [ O   X ]</li> <li>조선 후기에는 시현력, 곤여만국전도 등 서양 문물의 일부가 수용되었다. [ O   X ]</li> <li>홍경래는 상인, 광산 노동자 등과 함께 봉기를 일으켰다. [ O   X ]</li> </ul>
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화도 조약의 부속조약에서 해안 측량권을 일본에 허용하였다. [ O   X ]</li> <li>환구단에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 O   X ]</li> <li>삼국 간섭 이후 조선에서는 친러·친미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다. [ O   X ]</li> </ul>
일제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진회는 1900년대에 한일 합방 여론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합방 직후 해산되었다. [ O   X ]</li> <li>일제는 1910년대 후반에 서당 규칙을 제정하여 개량 서당의 설립을 방해했다. [ O   X ]</li> <li>원불교 - 박종빈이 1916년에 창시 /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강조 / 새생활 운동(남녀평등, 허례 폐지, 저축) 추진</li> </ul>

# 꼼꼼히 읽기 - EBS 완성(2016년)

<p>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5.10 총선거는 우리 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다. [ O   X ]</li><li>• 반민특위는 공소 시효의 단축으로 해체되었다. [ O   X ]</li><li>• 한미경제협정은 이승만 시기에 체결되었다. [ O   X ]</li><li>• 4.19 이후 혁신계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등 다양한 통일 요구가 제기되었다. [ O   X ]</li><li>• 유신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통과되었다. [ O   X ]</li><li>•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구호로 내걸었다. [ O   X ]</li><li>• 노태우 정부 시기 형성된 13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5공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 O   X ]</li><li>• 김대중 정부는 국제 통화기금의 관리 체제를 극복하였다. [ O   X ]</li></ul>
-----------	---

	백제	고구려	신라	통일신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국 문화의 일본 전수에 가장 크게 기여</li> <li>4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기 :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침</li> <li>- 왕인 : 천자문과 논어 전파(근초고왕)</li> </ul> </li> <li>6세기(성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리사치계 : 불경 및 불상 전파</li> </ul> </li> <li>백제 영향의 일본 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류사(광릉사) 미륵보살반가사유상</li> <li>- 호류사(법릉사) 백제관음상</li> </ul> </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물 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및 천문박사</li> <li>- 채약사, 화가, 공예 기술자</li> <li>→ 목탑 건립, 백제 가람 양식</li> </ul> </li> </ul> <p>cf. 백제 가람양식 - 3탑3금당 형태 : 익산 미륵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세기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종이와 먹의 제조방법 전래</li> <li>② 호류사 금당 벽화</li> </ul> </li> </ul> </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려 혜자 : 쇼토쿠 태자의 스승</li> <li>- 승려 혜관 : 불교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구려 영향의 일본 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카마쓰 고분벽화</li> <li>: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와 흡사</li> </ul> </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다카마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국 중 상대적으로 일본과 교류가 적은 편</li> <li>배 만드는 기술 전파</li> <li>제방 쌓는 기술 전파 : '한인의 연못'</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가야</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기 제작 기술 전래 → (일본) 스에키 토기</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수산리 벽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쿠호 문화(7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에서 온 사신을 통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호, 강수, 설총의 유교, 불교 문화 전래</li> <li>- 하쿠호 문화 성립에 기여</li> </ul> </li> </ul> <p>cf. 하쿠호(白鳳) 문화</p> <p>7세기 후반에 발달한 일본의 고대 문화로, 당과 통일 신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불상, 가람 배치, 탑, 율령과 정치 제도에서 신라의 불교와 유교의 영향이 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상 : 화엄사상 전래 → 일본 화엄종 영향</li> <li>8C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수도를 헤이안으로 이동 후</li> <li>- 외국 문화 영향으로부터 탈피 경향</li> </ul> </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마토 조정(6C) 성립 및 아스카 문화(7C, 나라 지방) 형성에 큰 영향</li> </ul>			
							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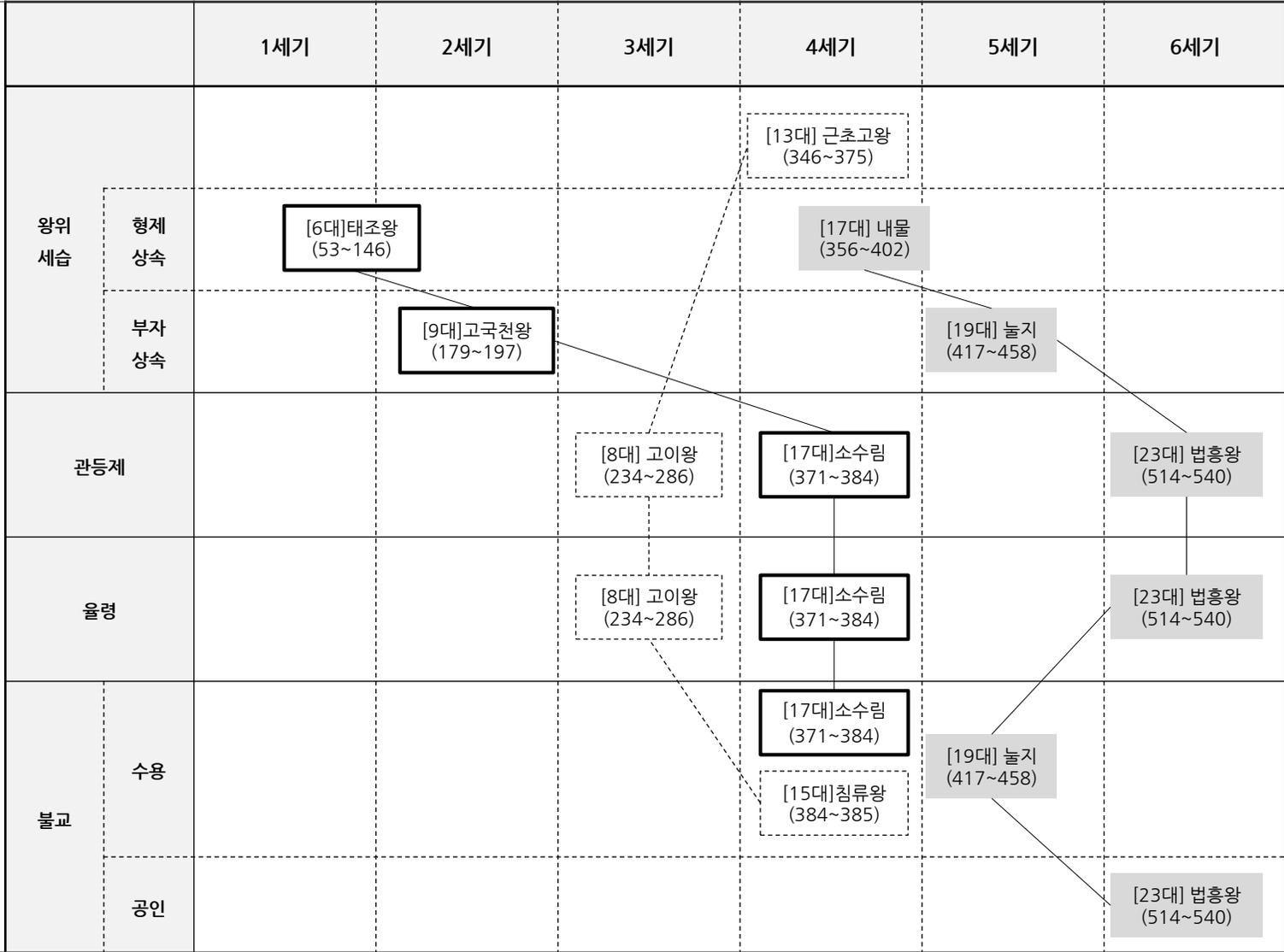
# [Theme] 한국사의 시대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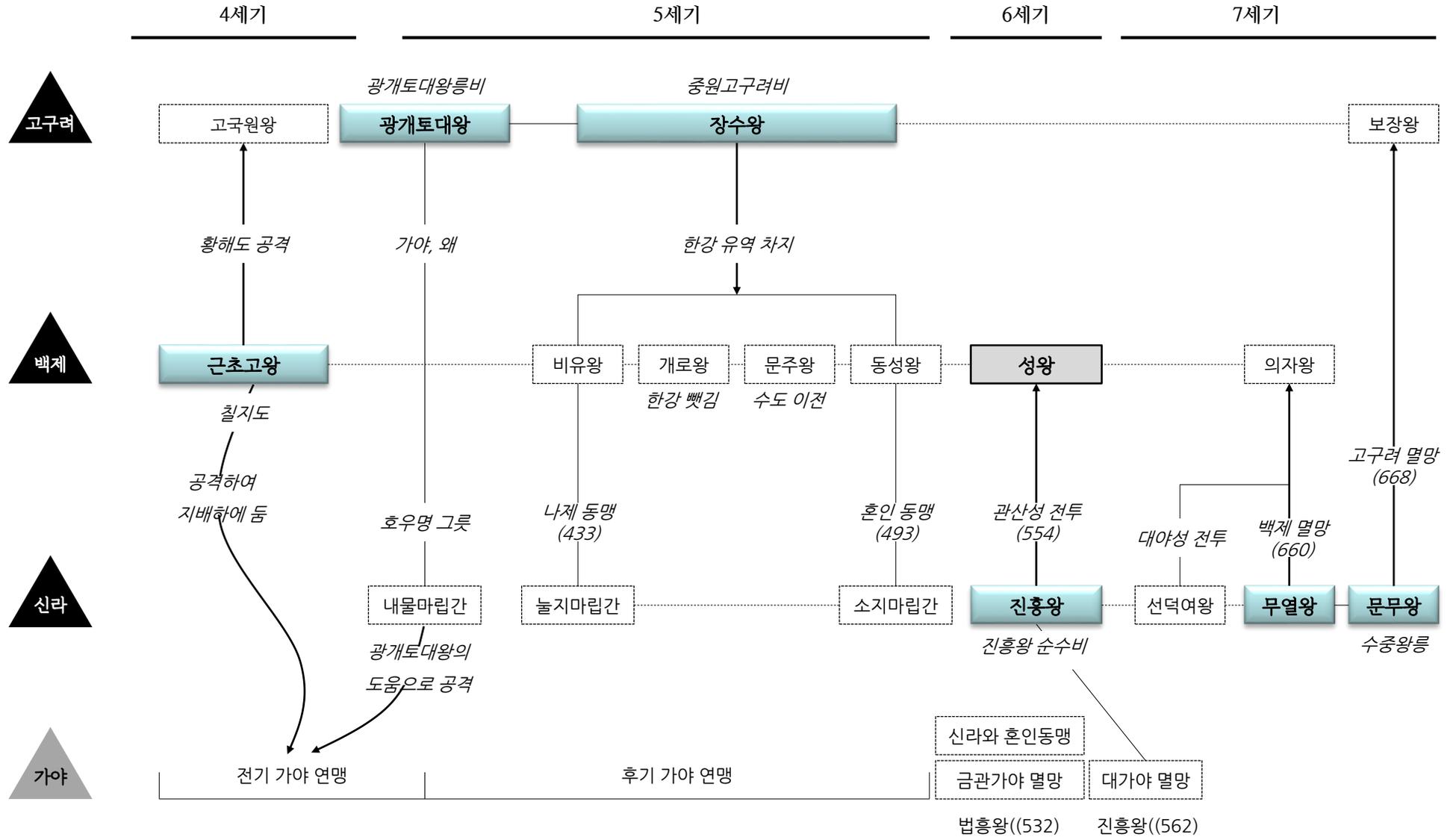
# 고대 왕국의 기틀 형성

## 고대 왕국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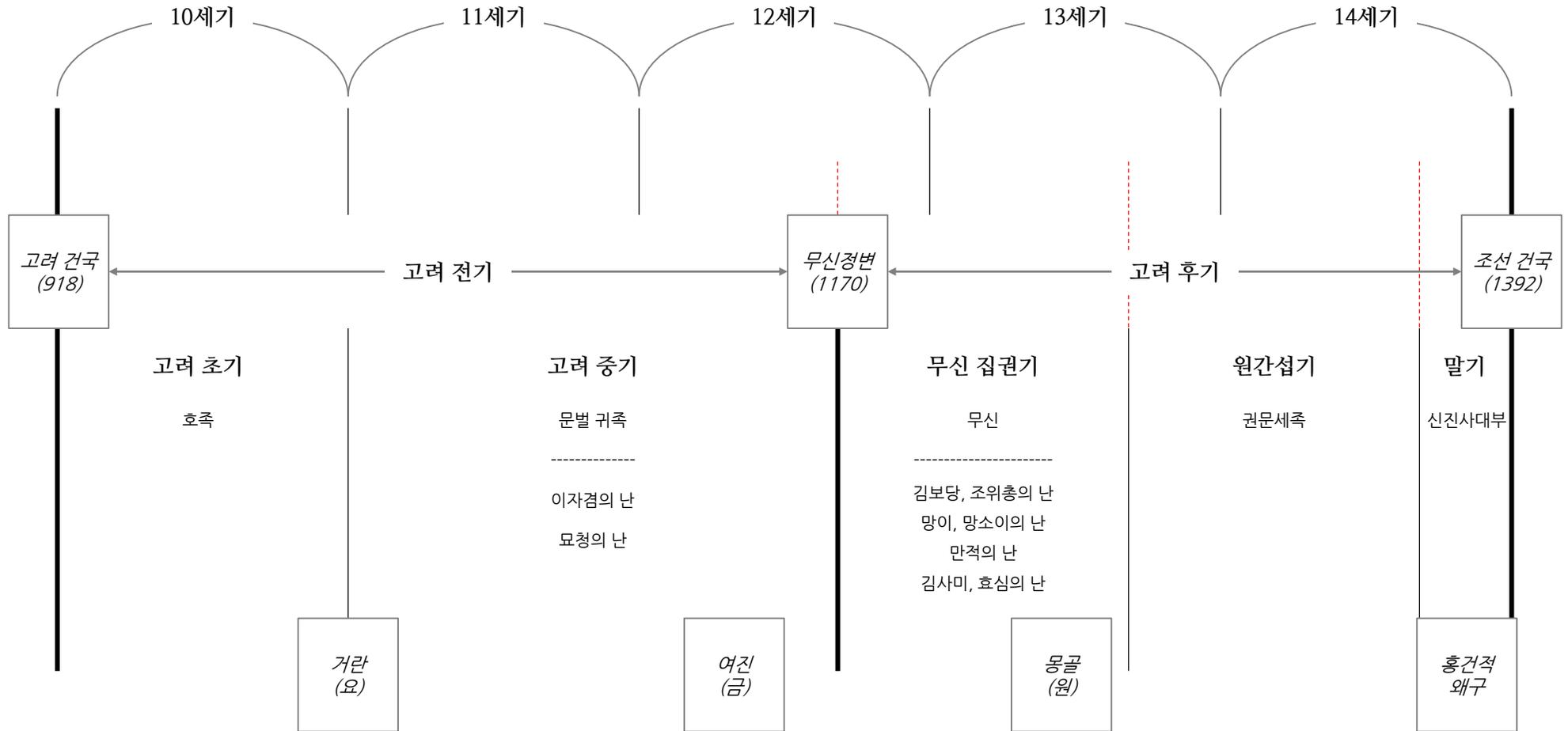
- 안정적 권력 이양 체계의 구축**  
: 왕위 세습 체계 구축  
: 1氏 세습 → 형제상속 → 부자상속
- 통치 체계의 구축**  
: 관등제, 관복, 지방제도, 관청
- 법치 체계의 정비**  
: 율령 반포
- 영토 확장**  
: 활발한 정복 활동
- 통합적 이데올로기의 도입**  
: 넓어진 영토 내의 민심 통합  
: 수준 높은 통치 철학  
: 불교 수용과 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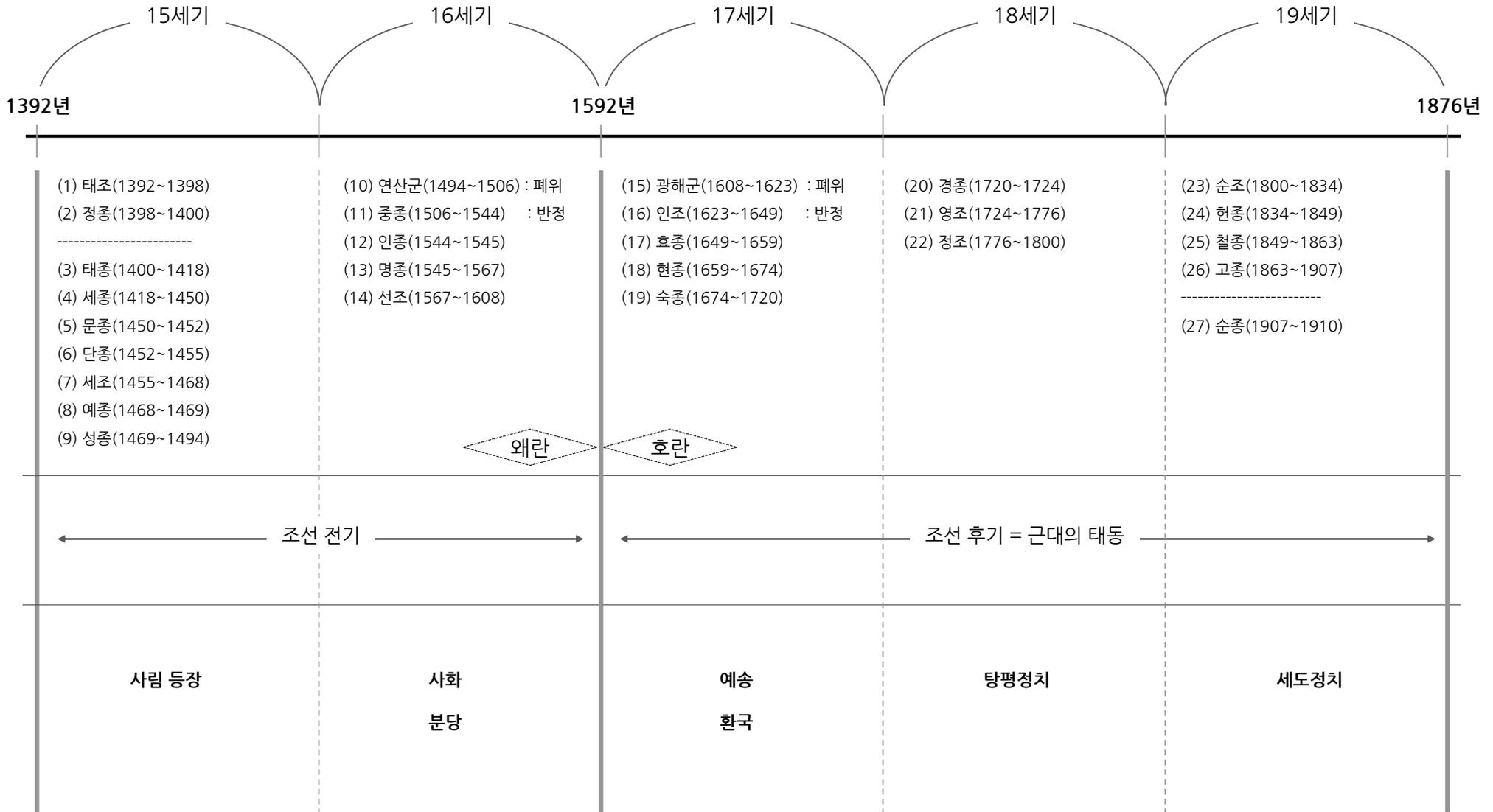
# [Theme] 삼국의 항쟁 - 요약



# [Theme] 고려의 시대 구분



# [Theme] 조선의 시대 구분



# [Theme] 역대 중앙통치 체제

항목	고대					중세	근세	근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1차 갑오	2차 갑오
체계	5부	5부	6부	-	3성 6부 (당 영향)	2성 6부 (당 + 독자)	의정부+6조	8아문	7부
최고 관직	대대로 대막리지	상좌평	상대등	시중(중시)	대내상	문하시중	영의정	-	-
관등, 품계	10여 관등	16관등	17관등	-	-	18품	18품	-	-
최고 관청	-	-	-	집사부	-	중서문하성	의정부	-	-
행정 관청	-	-	-	위화부, 조부 및 창부, 예부, 병부, 좌우 이방부, 예작부...	정당성 - 좌사정 (총, 인, 의부) - 우사정 (지, 예, 신부)	상서성 - 이병호형예공	6조 - 이호예병형공	-	-
왕명 출납	-	-	-	-	-	중추원(의 승선)	승정원	-	-
감찰	-	-	-	사정부	중정대	어사대	사헌부	-	-
언론	-	-	-	-	-	대간 = 낭사 + 어사대	3사 = 사간, 사헌, 홍문	-	-
회계	-	-	-	-	-	삼사	-	-	-
합좌 기구	제가회의	정사암회의	화백회의	화백회의	-	도병마사→도평의사사 식목도감	비변사	군국기무처	-
교육	태학 경당	-	-	국학 → 태학	주자감	국자감→국학→성균관	성균관	-	-

# [Theme] 역대 지방제도

항목	고대					중세	근세	근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2차 갑오	아관파천기
성격	군사조직			군사적 기능 < 행정적 기능 (행정적 기능 강화)		이원화(일반행정+군사)	일원화	-	-
체계	5부	5방	5주	9주	15부 62주	12목(성종) → 5도 양계(현종)	8도	23부	13도
지방관	육살	방령	군주	도독		(도)안찰사 / (계)병마사	관찰사	-	-
예하 행정 단위	성·군			군·현		(도) - 군·현 / (계) - 진	부·목·군·현	-	-
예하 지방관	-			(지방관 파견)			수령 (부사, 목사, 군수, 현령)	-	-
지방관 견제	-			외사경 상수리 제도	-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임기제, 상피제, 유향소, 암행어사	-	-
말단 행정 단위	촌			촌	-	촌	면, 리, 통	-	-
	촌주(지방관 아님)			촌주	-	-	촌주, 통수	-	-
지방군사제도	-	-	경	10경	(지방군)	(도)주현군 / (계)주진군	영진군 → 진관 → 제승방략 → 속오군 / 갑색군	-	-
특수 구역	3경	22담로	2소경	5소경	5경	3경 4도호부 8목	-	-	-
특수행정구역	-			향, 부곡	-	향, 부곡 / 소 / 역 / 진	X(소멸)	-	-

# [Theme] 역대 군사제도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1) 지방 행정 조직 = 군사조직 (2) 지방관 = 군사 지휘관				[중앙군] 10위
5부 (육살)	5방 (방령)	5주 (군주) ※ 정, 서당 존재	9서당 10정(신문왕 정비) (1) 9서당 : 민족 융합 정책 (2) 10정 : 각 주에 1정, 한주에 2정	[지방군] 지방관 = 군사 지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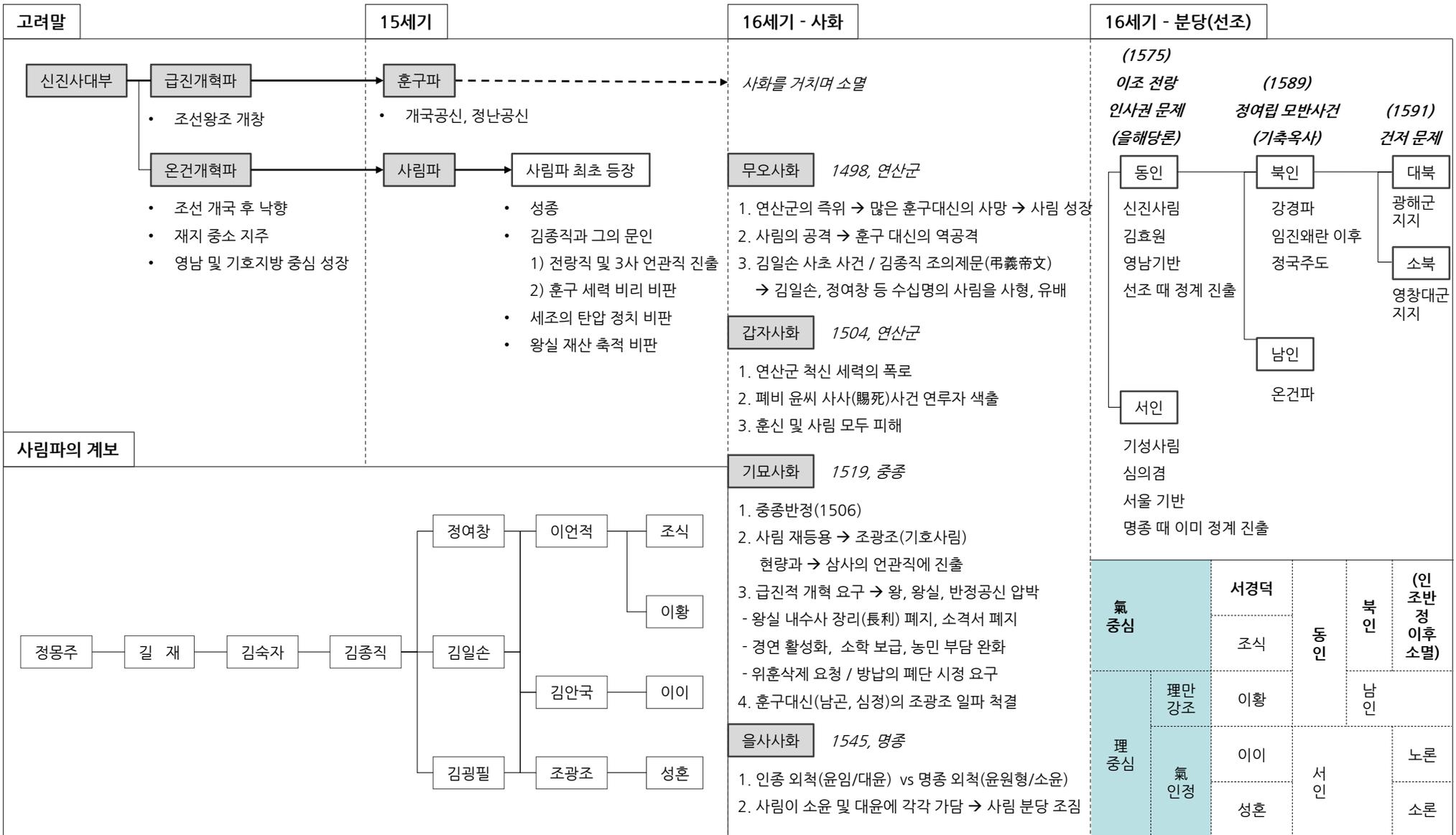
고려	조선
[중앙군] 2군 6위 - 직업군인 (1) 2군 : 국왕 친위대 (2) 6위 : 수도 경비 및 국경 방어	[중앙군] 삼군부 → 5위 → 5군영
[지방군] 16-60세 장정 (1) 5도 : 주현군 (2) 양계 : 주진군	[지방군] 영진체제 → 진관체제 → 제승방략 체제 → 속오군 체제(진관체제 복귀)
도병마사, 중추원의 추밀	비변사

흥선대위군	개화정책 추진기 (1880년대)	임오군란	2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	정미조약
삼군부 부활	5군영 → 2영으로 축소 별기군 설치	5군영 부활	훈련대, 시위대 설치	[중앙] 친위대 [지방] 진위대	원수부 설치 친위대, 시위대 개편 진위대 증강	군대 해산

# [Theme] 전쟁사

고조선(위만조선)	삼국	후삼국	고려	조선	근·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무제의 대규모 침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접전 대승(패수)</li> <li>- 1년간의 항전 : 지배층 내분</li> <li>- 왕검성 함락(B.C.108)</li> </ul> </li> <li>한군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랑, 진번, 임둔, 현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C : 백제 → 고구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초고왕 vs 고국원왕</li> </ul> </li> <li>5C : 고구려 → 백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수왕 vs 개로왕</li> </ul> </li> <li>6C : 나제동맹 → 고구려</li> <li>6C : 나제동맹 결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산성 전투</li> <li>- 진흥왕 vs 성왕</li> </ul> </li> <li>6C : 가야 멸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흥왕 : 금관가야 정복</li> <li>- 진흥왕 : 대가야 정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백제 → 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 공격, 경애왕 자살</li> </ul> </li> <li>후고구려 → 후백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건, 나주 점령(903)</li> </ul> </li> <li>고려 → 후백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건, 후백제 정벌(936)</li> </ul> </li> <li>거란 → 발해 멸망(92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란(요) : 10C말 11C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 서희 담판</li> <li>- 2차 : 양규의 선전</li> <li>- 3차 : 강감찬 귀주 대첩</li> </ul> </li> <li>여진(금) : 12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무반, 동북 9성</li> <li>- 이자겸의 군신관계 수용</li> </ul> </li> <li>몽골(원) : 13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동성 전투</li> <li>- 1차 침입 → 강화도 천도</li> <li>- 2~7차 침입 : 김윤후</li> <li>- 충주 다인철소</li> <li>- 용인 처인부곡</li> </ul> </li> <li>홍건적, 왜구 : 14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산전투</li> <li>- 황산전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포왜란(1510) : 중종</li> <li>사랑진왜변(1544) : 중종</li> <li>율묘왜변(1555) : 명종</li> <li>임진왜란(1592) : 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전투</li> <li>- 옥포, 당포, 당항포</li> <li>- 한산도 대첩</li> <li>- 해주대첩</li> </ul> </li> <li>정유재란(1591) : 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량대첩, 노량대첩</li> <li>cf. 이삼평</li> </ul> </li> <li>경묘호란(1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봉수 이립 : 철산용골산성</li> </ul> </li> <li>병자호란(163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인양요(1866)</li> <li>신미양요(1871)</li> <li>운요호(1875)</li> <li>청일전쟁(1894)</li> <li>러일전쟁(1904)</li> <li>봉오동, 청산리전투(1920)</li> <li>만주사변(1931)</li> <li>1930년대 전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li> <li>- 영릉가, 흥경성</li> </ul> </li> <li>중일전쟁(19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f. 보천보전투 (1937)</li> </ul> </li> <li>태평양전쟁(1941)</li> <li>한국전쟁(1950)</li> <li>베트남전 파견(1960년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 → 고구려(7C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을지문덕, 살수대첩</li> </ul> </li> <li>당 → 고구려 : 안시성 전투</li> <li>나당연합 → 백제 멸망(660)</li> <li>나당연합 → 고구려 멸망(668)</li> <li>나당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소성, 기벌포(676)</li> </ul> </li> </ul>				

# 사람의 등장과 붕당의 출현



■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의 국왕은 여진족과 왜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 ]를 설치하였다.



# 조선 후기의 수취 체제 개편

	배경 및 문제	내용	명칭 /시기	내용	결과	한계	영향
조 [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양란 이후 농촌의 파괴 150만결 → 30만결</li> <li>② 경작지 황폐화</li> <li>③ 굶주림과 질병</li> <li>④ 조세 부담의 유지</li> <li>⑤ 지배층의 민생 외면</li> </ul>		<b>영정법</b> 인조 (1635년) (17세기)	① 전세 고정 : 4두/1결 <b>[전세의 정액(定額)화]</b> ② 연분9등법 폐기 : 풍흉 무관	전세율 인하	① 부가세 증가 - 각종 수수료, 운송비 - 자연 소모 보충 비용 ② 부가세 > 전세액 - 부가세가 전세의 몇배	
용 [군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5군영의 성립 → 모병제 제도화 → 수포군 증가 (각 군영의 경비 충당)</li> <li>② 군포의 이중 징수 - 5군영의 징수 - 지방 감영 및 병영의 독자적 군포 징수 - 군포의 양 격차 존재 소속에 따라 2~3필</li> <li>③ 군역 대상자 축소 - 납속, 공명첩의 증가 - 군적 문란 → 군포 부과량 확대</li> </ul>	<b>[목적]</b> 1. 농촌 안정 2. 재정 확대 →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 유지	<b>군역법</b> 영조 (1750) (18세기)	<i>cf. 양역 변동론</i> ① 농민 : 군포 1필/1년 고정 = 군포 부담을 1/2로 축소 <i>cf. 경포 1필 = 폭 32.8cm, 길이 16m 38cm</i> 포 1필 = 저화 10장 ② 부족 재정 보충 1) 지주 : 결작 부과 - 2두/1결 <b>[군역의 전세(田稅)화]</b> 2) 일부 상류층 : 선무군관포 부과 - 1필 3) 잡세 보충 : 어장세, 선박세 → 국세로 전환	농민 부담의 일시적 경감	① 결작 부담의 소작농 전가 ② 군적 문란 심화 → 농민 부담 가중 → 백골징포, 황구첨정	대원군의 호포법 시행
조 [공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민에게 가장 큰 부담</li> <li>② 방납의 폐해</li> <li>③ 농민의 토지 유리 - 일종의 조세저항</li> </ul>	<b>[개편 방향]</b> - 조세의 토지 집중 - 지주 부담 ▲ - 소작인 부담 ▼ - 부세의 금납화	<b>대동법</b> 광해군 ~숙종 (1608 ~1708) (17~18C)	① 12두/1결 고정 : 호당 부과 → 토지당 부과 <b>[공납의 전세(田稅)화]</b> ② 쌀, 삼베,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 <b>[부세의 금납(金納)화]</b> ③ 경기도 시험 시행 → 점차 전국으로 확대	토지 무소유 농민 혹은 소토지 소유 농민의 부담 경감	① 현물 징수 계속 존재 - 별공, 진상 ② 지주가 대동세를 소작인에게 전가	① 공인의 등장 ② 상공업 발달 촉진 ③ 민영 수공업의 발달 ④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⑤ 조세의 금납화 촉진

■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전가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영조는 군역법을 시행하였다 [ O | X ]

# [Theme] 역대 신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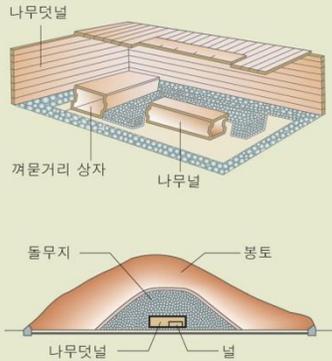
부족연맹체	고대				중세		조선전기		조선후기				
가, 대가	귀족				귀족(왕족 + 5품 이상)		양반		분화				
호민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중류층	잡류	중인(서리, 향리, 기술관...)	신분상승운동(소청운동)	
	고씨, 5부 귀족	부여씨, 8성 귀족	성골, 진골	대씨, 고씨	향리	서얼(서얼차대법)	집단상소운동 규장각 검서관 기용(경조)						
하호	평민		일반민		평민			백경		평민	농민		광착형 부농의 등장
						상업	상인, 수공업자						
						특수행정 구역	향	신량역천	조례				
	부곡	부곡	나장										
		소	일수										
	천민	천민		삼국		전쟁노비	천민 (일천즉천)	공노비	천민 (일천즉천)	공노비	입역노비	노비 종모법(영조) 공노비 해방(순조) 노비제 폐지(갑오개혁)	
통일신라				부채노비 형벌노비	사노비	외거					사노비		외거(납공)노비
						술거							외거

# [Theme] 역대 반란 및 봉기

부족연맹체		고대		통일신라	
부여	삼한	신라	고구려	중대	하대
수해, 한해, 흥년시 왕에게 책임을 물음	[소도] 죄인이라도 소도에 도망하면 잡지 못함	[화백회의] -국왕을 폐위시키기도 함(진지왕)	[연개소문] -천리장성 축조 과정 중 권력 장악  cf. 좌가려의 난(고국천왕, 190년)	* 신문왕 - 김흠돌의 난 * 백제 부흥 운동 : 복신, 도침, 흑치상지 * 고구려 부흥 운동 : 고연무, 검모잠, 안승	* 왕위쟁탈전 * 장보고의 난 * 김헌창의 난 * 원종과 애노의 난(상주) * 김범문의 난 / 김지정의 난

후삼국	고려			
	초기	12세기	무신집권기	고려말
* 후백제 : 견훤 * 후고구려 : 궁예	* 왕규의 난  * 강조의 정변(1009) - 거란 2차 침입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겸의 난(1126)</li> <li>• 묘청의 난(1135)</li> <li>• 무신정변(1170)</li> </ul>	(1) 조위홍의 난(1174) (2) 망이, 망소이의 난(1176) (3) 김사미, 효심의 난(1193) (4) 만적의 난(1198) (5) 부흥 운동 ① 고구려 : 최광수의 난(1217) ② 백제 : 이연년의 난(1237) ③ 신라 : 효심, 김사미의 난(1193)	* 위화도 회군(1388)

조선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 1차 왕자의 난(1398)	* 2차 왕자의 난(1400) * 계유정난(1453) - 세조 * 이징옥의 난(1453) * 이시애의 난(1467)	* 중종반정(1506) * 임궫정의 난(1559) * 정여립 모반 사건(1589)	* 인조반정(1623) * 이괄의 난(1624)	* 이인좌의 난(1728)	* 홍경래의 난(1811) * 임술농민봉기(1862) * 동학농민운동(1894)

<p><b>고구려</b></p>					
<p>전기 <b>돌무지무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무지 무덤 - 돌을 쌓아 만든 무덤, 청동기~삼국시대</li> <li>• 만주 집안(지안) 일대 12,000여 기의 돌무지무덤 무리 - 장군총이 대표적 -----&gt;</li> </ul>		<p>평양 천도 이후 <b>굴식돌방무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식돌방무덤 - 돌로 1 개 이상의 방을 만들고 그것을 통로로 연결한 무덤으로, 일반적으로 앞방과 널방으로 구분</li> <li>• 돌널방 + 흙 봉분 + 널방벽 및 천장의 벽화   도굴용이 - 꺼묻거리 X</li> <li>• 벽화: 고구려인의 생활, 문화, 종교 등을 파악 (초기) 무덤 주인의 생활 묘사 → (후기) 추상적인 그림 ex)사신도</li> <li>• 만주 집안, 평안도 용강, 황해도 안악 등지</li> </ul>			
<p><b>백제</b></p>	<p>한성 시대 <b>돌무지무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단식 돌무지 무덤 - 서울 석촌동</li> <li>• 백제 건국 세력 = 고구려 계통</li> </ul>	<p>웅진 시대 <b>굴식 돌방무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형태 - 공주 송산리 고분군</li> <li>• 벽화 존재</li> </ul>	<p>사비 시대 <b>굴식 돌방무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산리 고분군</li> <li>• 건축 기술 및 벽화의 세련됨</li> </ul>		
		<p><b>벽돌 무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령왕릉: 중국 남조(양)의 영향, 지석 출토 cf. 양직공도</li> <li>• 송산리 6호분: 벽화 존재 ex)사신도</li> </ul>			
<p><b>신라</b></p>	<p>통일 이전 <b>돌무지 덧널 무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무지 덧널 무덤: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꺼묻거리를 넣은 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냇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음</li> <li>• 대표적 고분: 천마총 cf. 천마도의 출토 - 벽화 아님</li> <li>• 거대한 규모의 돌무지 덧널 무덤</li> <li>• 돌무지 → 도굴 어려움 → 꺼묻거리 출토</li> </ul>		<p>통일 직전 <b>굴식 돌방무덤</b></p>	<p>통일 이후 <b>굴식 돌방무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토 주위의 돌레돌 + 12지신상 조각</li> </ul>	<p><b>발해</b></p>
			<p><b>화장 유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교의 영향 ex) 문무왕릉</li> </ul>	<p>정혜공주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식돌방무덤</li> <li>• 모줄임 천장 구조 (고구려 양식 계승)</li> </ul> <p>정효공주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돌무덤</li> <li>• 묘지 및 벽화 존재</li> <li>• 발해의 높은 문화 수준</li> </ul>	

## 신라

### 1. 천마도 : 경주 황남동 천마총

- 신라의 힘찬 화풍



[ 천마도(국립 중앙 박물관 소장) ]

자작나무 껍질을 겹쳐서 만든 말의 배가리개  
에 하늘을 나는 천마를 그림

### 2. 솔거

- 황룡사 벽에 그린 소나무 그림

## 고구려



현무도(평남 강서 강서 대묘)

사신도의 하나로, 북쪽 방위신이다.

## 15세기

### 1. 15세기의 그림

#### (1) 독자적 화풍

- ① 중국 역대 화풍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소화
- ② 일본 무로마치 시대의 미술에 큰 영향

#### (2) 화원의 그림(도화서 소속)

- ① 안견 : 역대 화가들의 기법 체득 → 독자적 경지
- ② 안견의 <몽유도원도>
  -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능숙하게 처리
  - 대각선적인 운동감을 활용
  - 안평 대군이 꿈 속에서 본 도원을 형상화 (일본 덴리 대학 소장)

### (3) 문인화

- ① 강희안 : 시적 정서가 흐르는 낭만적 화풍
- ②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 간결, 과감, 인물의 내면 세계



## 16세기

### 1. 16세기의 그림 - 다양한 화풍의 발달

- (1) 강한 필치의 산수화
- (2) 사군자 : 선비의 정신 세계 표현
- (3) 초충도, 포도, 묵죽도, 매화

### 2. 이상좌 : 노비 출신 화원

- (1) 색다른 분위기의 그림
- (2) <송하보월도>
  - ① 바위틈에 뿌리박고 모진 비바람을 이겨 내는  
높은 소나무를 통해
  - ② 강인한 정신과 굳센 기개를 표현



## 18세기

### 1. 진경산수화

- (1) 17세기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커짐
  - 고유 정서와 자연을 표현하려는 예술 운동
- (2) 중국 남종 +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
- (3) 우리 고유의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

### 2. 겸재 정선(1676~1759)

- (1) 서울 근교 및 강원도의 명승지를 사실적으로 묘사
- (2)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



[ 인왕제색도 ]

### 3. 김홍도(1745~?)

- 산수화 및 풍속화의 새 경지



[ 무동 (김홍도) ]

### 4. 신윤복(1758년 ~ ?)

- 양반 및 부녀자의 생활, 유희, 남녀 사이의 애정
-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



[ 단오 풍경(신윤복) ]



[ 미인도(신윤복) ]

### 5. 강세황(1713~1791년)

- 서양화 기법 반영 : 사물을 실감나게 묘사



[ 영통골 입구도 ]

## 19세기

### 1. 장승업 : 강렬한 필법과 채색법

### 2. 김정희 등 문인화의 부활

- 진경산수화와 풍속화의 침체

### 3. 민화의 유행

- 민중의 미적 감각
-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 가치 호랑이 ]

# 자기

[11세기] - 청자 - 독자적 경지 개척	[12~13세기 중엽] - 상감청자 - 고려의 독창적 기법	원간섭기 이후	고려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라와 발해의 전통과 기술을 토대로,</li> <li>② 송의 자기 기술을 수용.</li> <li>③ 중국인이 천하의 명품으로 꼽음</li> <li>④ 민족의 정취 : 그윽한 색 + 다양한 형태 + 고상한 무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감법 : 12세기 중엽 개발 → 자기에 응용 - 그릇 표면을 파낸 자리에 백토, 흑토를 메워 무늬를 내는 방법 - 나전 칠기 및 은입사 공예에서 응용</li> <li>②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 - 청자의 새로운 경지 개척</li> </ul>	상감 청자의 퇴조	분청사기의 등장 - 청자에 백토의 분을 칠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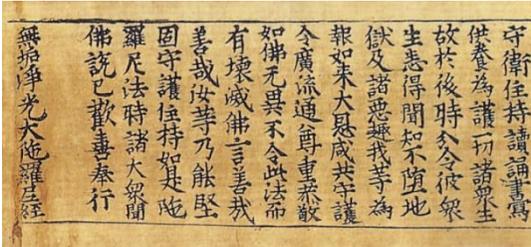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  
(간송 미술관)



청자 진사 연화무늬표주박 모양 주자  
(호암 미술관)

[15세기] 분청사기	[16세기] 백자	[조선 후기] 청화백자	[조선 후기] 백자
 <p>분청사기 철화 어문병</p>	 <p>순백자병</p>	 <p>청화 백자 대나무무늬 각병</p>	 <p>달항아리 몸체는 유려한 둥근 선을 그리고, 굽은 주둥이보다 좁은 순백자</p>

# 인쇄술 및 제지

	통일 신라	고려	조선
인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쇄술 및 제지술 발달</li> <li>무구정광대다라니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li> <li>- 8세기 초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불경</li> <li>-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li> </ul> </li> </ul>  <p>무구정광대다라니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판 인쇄술 발달 : 1책 다량 인쇄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조대장경(11C) : 거란 침입 때 제작, 몽골 침입 때 소실.</li> <li>일부 잔존, 고려 인쇄술의 정수</li> <li>- 재조(팔만)대장경(13C) : 몽골 침입 때 제작</li> </ul> </li> <li>금속 활자 인쇄술 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판 인쇄 기술의 발달 + 인쇄먹 및 종이 제조 기술</li> <li>- 12세기말~13세기 초 금속활자 발명 추측</li> <li>- 13세기 중엽(1234), &lt;상경고금예문&gt;을 금속활자로 인쇄 : 전하지 않음</li> <li>cf. 상경고금예문 : 12세기 인종 때 최윤의 등이 지은 의례서인데, 강화도로 천도할 때 예관이 가지고 오지 못하여 최우가 보관하던 것을 강화도에서 금속 활자로 28부를 인쇄하였다.</li> <li>- 14세기(1377) &lt;직지심체요절&gt;을 금속활자로 인쇄 :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 현존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li> <li>: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 인쇄술의 개량</li> <li>태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자소 설치</li> <li>- &lt;계미자&gt; 주조 : 구리 사용</li> </ul> </li> <li>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갑인자&gt; 주조 : 구리 사용, 글자가 아름답고 인쇄에 편리</li> <li>- 활자 고정 방법 개선 : 밀랍 대신 식자판 조립방법 창안</li> </ul> </li> </ul>  <p>갑인자로 찍은 책 (자치통감강목)</p>
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구정광대다라니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닥나무로 제작</li> <li>- 지금까지 보존될 정도로 우수한 품질</li> </ul> </li> <li>담징(고구려, 7C) - 종이 제조 방법을 일본에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적으로 닥나무 재배 장려</li> <li>종이 제조 전담 관서 설치</li> <li>질기고 희면서 앞뒤가 반질반질하여 글을 쓰거나 인쇄하기에 적당한 종이 생산</li> <li>고려 종이는 중국에 수출되어 호평 받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지서 설치 : 종이 전문 생산 관청</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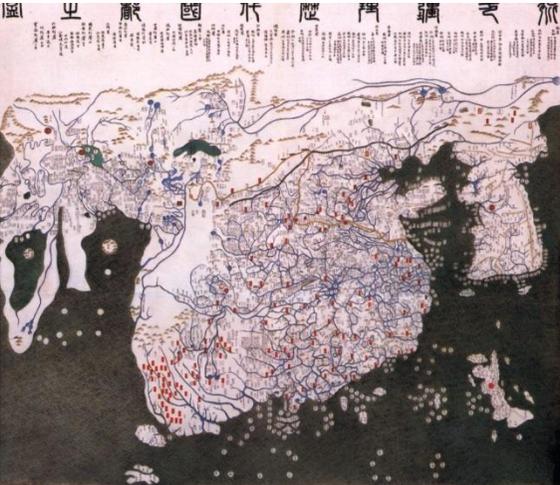
# 문화의 전파 및 수용 | 고대

	백제	고구려	신라	통일신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국 문화의 일본 전수에 가장 크게 기여</li> <li>4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기 :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침</li> <li>- 왕인 : 천자문과 논어 전파(근초고왕)</li> </ul> </li> <li>6세기(성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리사치계 : 불경 및 불상 전파</li> </ul> </li> <li>백제 영향의 일본 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류사(광릉사) 미륵보살반가사유상</li> <li>- 호류사(법릉사) 백제관음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세기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종이와 먹의 제조방법 전래</li> <li>② 호류사 금당 벽화</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려 혜자 : 쇼토쿠 태자의 스승</li> <li>- 승려 혜관 : 불교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구려 영향의 일본 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카마쓰 고분벽화</li> <li>: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와 흡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국 중 상대적으로 일본과 교류가 적은 편</li> <li>배 만드는 기술 전파</li> <li>제방 쌓는 기술 전파 : '한인의 연못'</li> </ul>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ext-align: center; padding: 5px;">가야</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기 제작 기술 전래 → (일본) 스에키 토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쿠호 문화(7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에서 온 사신을 통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호, 강수, 설총의 유교, 불교 문화 전래</li> <li>- 하쿠호 문화 성립에 기여</li> </ul> </li> <li>cf. 하쿠호(白鳳)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세기 후반에 발달한 일본의 고대 문화로, 당과 통일 신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불상, 가람 배치, 탑, 율령과 정치 제도에서 신라의 불교와 유교의 영향이 컸다.</li> </ul> </li> <li>심상 : 화엄사상 전래 → 일본 화엄종 영향</li> <li>8C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수도를 헤이안으로 이동 후</li> <li>- 외국 문화 영향으로부터 탈피 경향</li> </ul> </li> </ul> 	
					가야

# 문화 전파 및 수용 | 고려~조선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 영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성6부제</li> <li>- 당률</li> <li>- 선명력(통일신라 ~ 고려 초기)</li> <li>- 구양순체(고려 전기)</li> <li>- 의학</li> </ul> </li>   <li>▪ <b>송 영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악(대성악)</li> <li>- 악기(약 40여종)</li> <li>- 의학</li> </ul> </li>   <li>▪ <b>원 영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풍(번발...) vs <i>고려양</i></li> <li>- 화약 제조법(최무선)</li> <li>- 목화씨(문익점)</li> <li>- 성리학(안향 / 만권당, 이제현)</li> <li>- 수시력(충선왕)</li> <li>- 송설체(조맹부체, 고려 후기)</li> <li>- 원대 북화의 영향(공민왕-천산대렵도)</li> <li>- 농상집요(이암 소개)</li> </ul> </li>   <li>▪ <b>이슬람 영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 기술(천문, 역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명 영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력</li> <li>- 양명학(서거정)</li> </ul> </li>   <li>▪ <b>아라비아의 영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회력</li> </ul> </li>   <li>▪ <b>일본 관련 : &lt;해동제국기&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 명에 의해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 편찬</li> <li>- 성종 때 완간</li> <li>- 일본 및 류큐국에 관련된 정보 기술</li> <li>- 15세기 조선의 독자적 화풍이 일본 무로마치 시대의 미술에 영향을 줌</li> </ul> </li>   <li>▪ <b>이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li> </ul> </li>   <li>▪ <b>임진왜란 - 일본에 문물 전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자, 그림, 서적 약탈</li> <li>- 성리학자 나포 : 일본 성리학 발전에 기여</li> <li>- 인쇄공 나포</li> <li>- 도자기 기술자 나포 : 이삼평 등, 일본 도자기 발달에 결정적 기여</li> <li>cf. <i>임진왜란 = 도자기 전쟁</i></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청 영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증학</li> <li>- 시헌력 : 김육, 아담 샬</li> </ul> </li>   <li>▪ <b>청을 통한 서양문물의 수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신을 통한 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선조 때) 이광정 : 세계 지도</li> <li>② (인조 때) 정두원 : 화포, 천리경, 자명종</li> </ul> </li> <li>- 선교사를 통한 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헌력 : 김육</li> <li>② 곤여만국전도</li> <li>③ 기기도설 : 정약용, 거중기, 화성 건립</li> </ul> </li> <li>- 자발적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서학</li> <li>② 지전설 : 김석문, 홍대용</li> </ul> </li> </ul> </li>   <li>▪ <b>양명학의 발전(소론-강화학파-정제두)</b></li>   <li>▪ <b>서양화 기법 전래 - 강세황</b></li>   <li>▪ <b>17세기 : 표류 외국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테브레이(Weltevree) = 조선명 : 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조 때 제주도에 표류하여 귀화</li> <li>② 훈련도감 소속 -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 훈육</li> </ul> </li> <li>- 하멜 : 네덜란드 귀국 후 &lt;하멜표류기&gt; 집필 - 조선을 서양에 전파</li> </ul> </li>   <li>▪ <b>허준의 &lt;동의보감&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및 일본에서도 간행</li> </ul> </li> </ul>

# 지리서 및 지도

	조선전기		조선후기
	15세기	16세기	
지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 : 신찬팔도지리지</li> <li>성종 : 동국여지승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현의 연혁, 자세, 인물, 풍속, 산물, 교통 등의 정보를 자세히 수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종 : 신증동국여지승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국여지승람을 보충</li> <li>- 현재까지 전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지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백겸 &lt;동국지리지&gt; 17C</li> <li>- 정약용 &lt;아방강역고&gt; 18C</li> </ul> </li> <li>인문지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환 &lt;택리지&gt;</li> <li>- 각 지역의 자연환경, 물산, 풍속, 인심 서술</li> <li>- '어느 곳이 살기 좋은 곳인가'를 논함</li> </ul> </li> </ul>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종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사본 전래 : 일본</li> <li>-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 팔도도 : 전국 지도</li> <li>[세조] 동국지도 : 양성지 등 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많은 지도 제작</li> <li>대표작 : 조선방역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양식 지도 전래</li> <li>&lt;대동여지도&gt; 김정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 표시 정밀</li> <li>- 10리마다 눈금 : 거리 측정 가능</li> <li>- 목판으로 인쇄</li> </ul> </li> <li>곤여만국전도 전래</li> </ul> 

# [Theme] 한국의 UNESCO 지정 유산 / 2015년 10월 11일 현재

세계 유산	기록 유산	무형 유산
<p>1. 고인돌 유적 1) 고창 고인돌 유적 : 전북 고창, 국내 최대 고인돌 군집 2) 화순 고인돌 유적 : 전남 화순 일대, 500여기, 고인돌 채석장 3) 강화 고인돌 유적 : 국내 최대 탁자식 고인돌(7.1m X 2.6m)</p> <p>2. 경주 역사 유적 지구 1) 남산 지구 : 배동 석불입상, 포석정 2) 월성 지구 : 계림, 첨성대 3) 대릉원 지구 : 금관, 천마도 4) 황룡사 지구 : 황룡사, 분황사 5) 산성 지구 : 명활산성</p> <p>3. 석굴암, 불국사</p> <p>4. 해인사 장경판전 : 15세기 조선 건축</p> <p>5. 종묘 : 정전, 영녕전</p> <p>6. 창덕궁 : 태종</p> <p>7. 수원 화성 : 정조</p> <p>8.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p> <p>9. 조선 왕릉</p> <p>10. 안동 하회마을 및 경주 양동마을</p> <p>11. 남한산성</p> <p>12. 백제 역사 지구</p>	<p>1. 훈민정음 : 1443</p> <p>2. 조선왕조 실록 1) 태조 ~ 철종 : 25대 472년간 기록 2) 편년체</p> <p>3. 직지심체요절 - 1377년, 청주 흥덕사</p> <p>4. 승정원일기 - 원본이 1부 밖에 없는 귀중한 자료 - 세계 최대의 연대기 기록물(글자수 2억4천250만자)</p> <p>5. 팔만대장경판</p> <p>6. 조선왕조 의궤</p> <p>7. 동의보감</p> <p>8. 일성록</p> <p>9. 5.18민주화 운동 기록물</p> <p>10. 난중일기</p> <p>11. 새마을 운동 기록물</p> <p>12. 유교책판</p> <p>13.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p>	<p>1.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p> <p>2. 판소리</p> <p>3. 강릉 단오제</p> <p>4. 강강술래</p> <p>5. 남사당놀이</p> <p>6. 영산재</p> <p>7.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p> <p>8. 처용무</p> <p>9. 가곡</p> <p>10. 대목장</p> <p>11. 매사냥</p> <p>12. 줄타기</p> <p>13. 태권</p> <p>14. 한산모시짜기</p> <p>15. 아리랑</p> <p>16. 김장문화</p> <p>17. 농악</p>

# [Theme] 근·현대사의 시대 구분

근대

현대

개화정책 추진기

일제 시대  
[수탈과 저항]

	성격	인물·사건
1860's	통상수교 거부 정책	홍선 대원군
1870's	개항	'76 강화도조약 '82 조미수호통상
1880's	개항의 부작용	'82 임오군란 '84 갑신정변
1890's	부작용의 극복을 위한 다면적 개혁	'94 동학농민운동 '94 갑오개혁 '96 독립협회 '99 광무개혁
1900's	망국(亡國)의 조약	'04 한일의정서 '04 1차 협약 '05 을사 조약 '07 정미 조약 '09 기유 각서 '10 한일 합방

	정치적 수탈	경제적 수탈
1910's	무단 통치	토지 조사 사업
1920's	무단 통치	산미 증식 계획
1930~1945	민족 말살 통치	남면 복양 정책 중화학 공업 육성 병참 기지화 전략

	대통령	주요 사건
1950's	이승만	한국 전쟁
1960's	대통령	4.19 5.16
1970's		전태일 사건 7.4남북 공동성명 10월 유신
1980's	전두환	5.18 87년 6월 항쟁
1990's	김영삼, 김대중	IMF
2000's	노무현, 이명박	6.15남북공동선언 행정수도 이전 2차 남북 정상회담 4대강 사업
2010's	박근혜	

# 사절단 파견 및 개화 정책의 추진

사절단 및 시찰단					
연도	사절단	국가	주요 인물	결과 / 특이 사항	주요 사항
1876	1차 수신사	일본	김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화도조약 체결 직후 파견</li> <li>일본 문물 시찰 (해군성, 육군성, 대포, 기계, 전신)</li> <li>김기수의 [일동기유] 저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국 후 보고서 제출</li> <li>군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기군 신설</li> </ul> </li> <li>관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리기무아문 설치</li> </ul> </li> </ul>
1880	2차 수신사	일본	김홍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평등 조약 개정 요청</li> <li>일본 문물 시찰</li> <li>[조선 책략] 소개</li> <li>지석영 - 종두법 익혀 옴</li> </ul>	
1881	조사시찰단 (朝士視察團) 신사유람단	일본	박경양, 어윤중 등 6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의 발전상 시찰</li> <li>정치, 군사, 산업 등 각 분야별 시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국 후 보고서 제출</li> <li>비밀리에 파견(스파이)</li> <li>박문국·전환국(1883) 설치에 영향</li> </ul>
	영선사	청 (텐진)	김윤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대적 무기 제조법 습득</li> <li>근대적 군사훈련법 습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기창 설치(1883)에 영향</li> <li>비용 부족 및 임오군란의 발발로 조기 귀국</li> </ul>
1882	3차 수신사	일본	박영호(+ 김옥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오군란시 일본공사관 피습에 대한 사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옥균의 차관 협상 실패 → 갑신정변의 배경</li> <li>태극기 사용</li> <li>치도국(도로 건설)</li> <li>경찰국</li> </ul>
1883	보병사	미국	민영익, 서광범, 유길준, 홍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미수호통상 체결 답례</li> <li>미국 아서(Arthur, C. A) 대통령과 2회 회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영공원 설립에 영향</li> <li>유길준은 미국에 남아 유학</li> <li>나머지는 유럽을 경유하여 귀국</li> <li>박문국 설치에 영향</li> <li>우정국 설치의 계기</li> </ul>

### 개화 정책의 추진

- 개화정책 추진의 배경**
  -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개혁 추진
- 개화 정책 추진**
  - (1) 관제 개편(청의 영향)
    - ① 통리기무아문 설치 : 의정부 직속 기구(임오군란 때 폐지)
    - ② 12사 설치(외교·군사·통상·재정 등 개화 행정 담당)
  - (2) 군제 개편 (일본의 영향) *cf. 임오군란*
    - ① 5군영→2영(무위영·장어영)으로 축소
    - ② 별기군 설치(신식 군대,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채용)
- 군대 시설 설치**
  - : 기기창(1882), 박문국(1883), 전환국(1883), 우정국(1884)

**관제 개편**

```

            graph TD
            A[의정부] --- B[6조]
            A --- C[통리기무아문]
            C --- D["12사  
(개화업무관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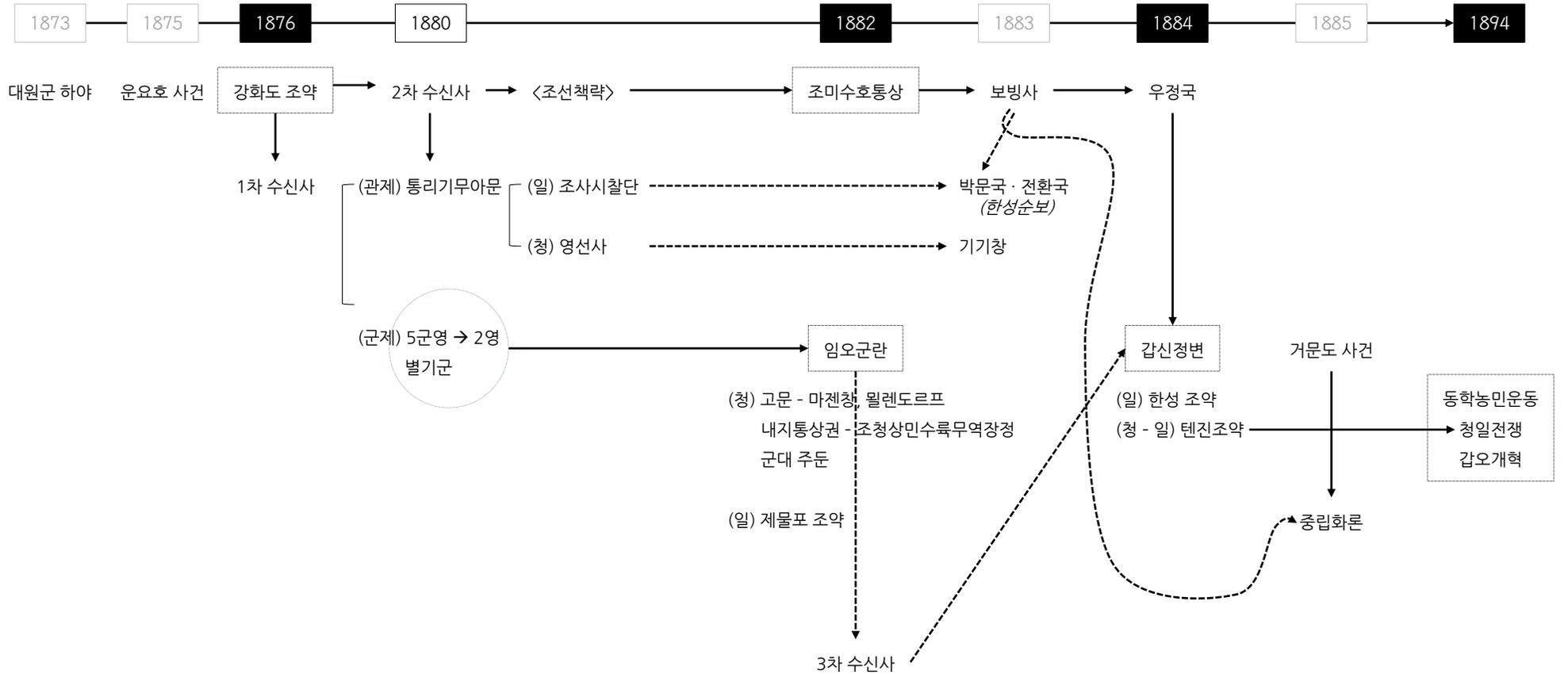
**군제 개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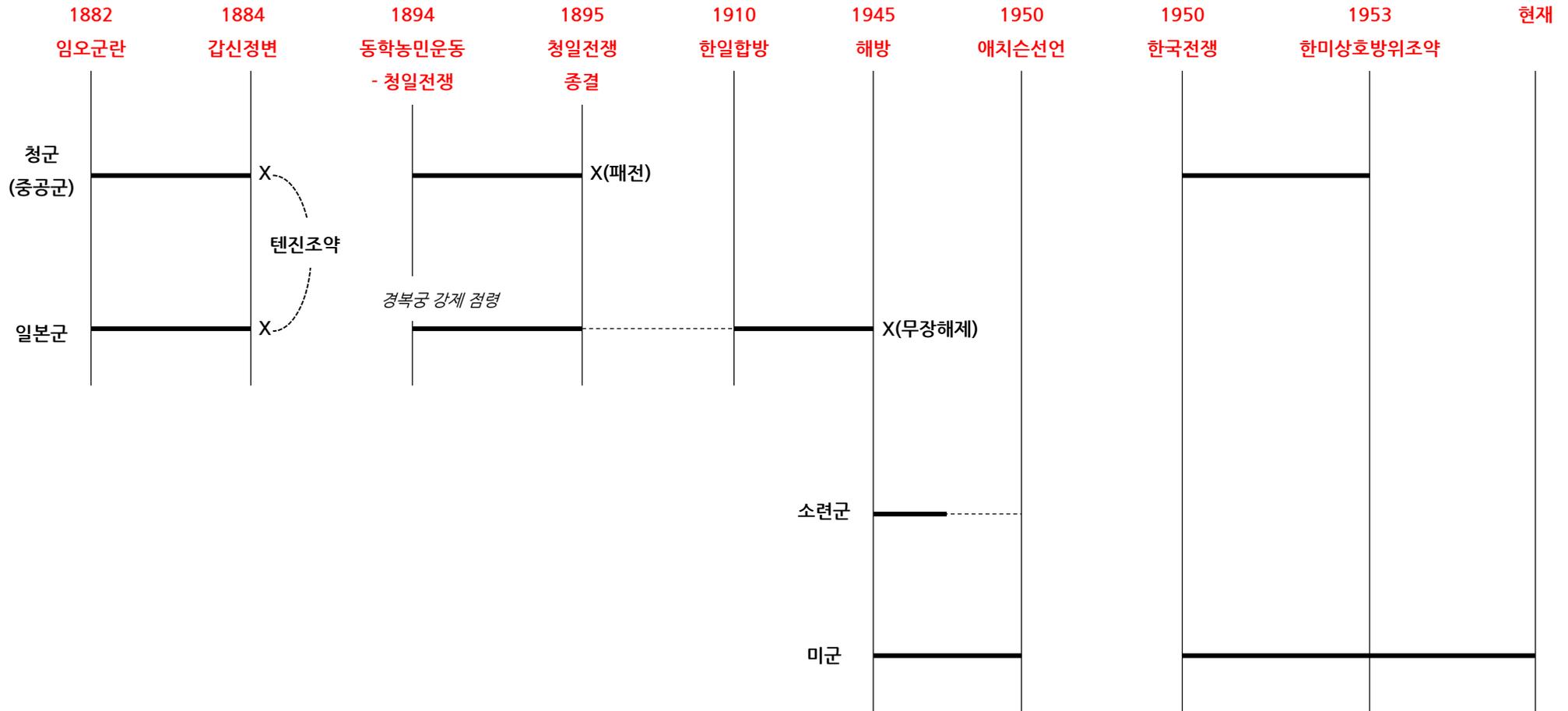
            graph TD
            E[2영] --- F[무위영]
            E --- G[장어영]
            H[별기군]
            
```

■ 미국으로의 보병사 파견은 조미수호통상 조약 체결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 O | X ]

# [Theme] 개항 전후 20년 간의 시간적 흐름과 인과 관계



# [Theme] 외국군의 국내 주둔



# [Theme] 대원군, 갑신, 동학, 갑오, 을미, 독립협회, 광무개혁 비교

항목	흥선대원군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독립협회	대한제국 (광무개혁)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신분제	-	문벌 폐지 → 인민평등권	백정의 평랑갓 노비 문서 칠반천인의 차별	공식적 신분제 폐지	-	-	-	(아관파천 시기) 호적에 신분 대신 직업 기재
주도 세력	대원군	급진개화파	농민	흥선대원군 / 김홍집	일본	일본	유학파 근대적 지식인	고종
청의 종주권	-	부인(대원군 송환)	-	-	부인(독립서고문)	-	부인(독립문 건립)	최초 대등 조약 체결 (한청통상조약)
관리 등용	-	능력에 따라 등용	지벌타파, 인재 등용	과거제 폐지	문벌 타파, 인재등용	-	-	-
관리 부패	-	부정한 관리 치죄	탐관오리 엄벌	-	-	-	-	-
정치 기구	비변사 철폐	의정부, 6조 이외 불필요 기관 철폐	교정청 설치	왕실사무, 국정사무 분리(공내부-의정부) 군국기무처 설치	-	-	중추원(의회)	교전소
군주권	강화(경복궁 중건)	대신과 참찬이 경령을 의결	-	-	군주의 정치에 대한 대신 자문 및 재결	-	칙임관 임명시 중의 따를 것(입헌군주제)	모든 권한의 황제 집중
재정의 일원화	-	호조	-	탁지아문	-	-	탁지부	Cf. 공내부 내장원
조세 제도	삼정개혁(호포, 사창)	지조법 개혁	무명잡세 일체 폐지	-	조세 법정 주의	-	예산 및 결산의 국민 공포	-
토지 제도	양전사업(은결 색출)	-	토지 평균 분작	-	-	-	-	양전사업(지계 발급)
지방제도	-	-	-	-	8도 → 23부	-	-	-
중앙 관제	의정부 부활	-	-	6조 → 8아문	8아문 → 7부 사법부 독립	-	-	-
군사 제도	삼군부 부활	-	-	-	훈련대, 시위대 설치	친위대, 진위대 설치	-	원수부 설치 친위대, 시위대 개편 진위대 증강

# [Theme] 일제 시대 일본의 수탈

구분	1910년대	1920년대	1930~1945			
			1931 - 만주사변	1937 - 중일전쟁	1941 - 태평양 전쟁	
정치적 수탈	무단 통치	문화 통치 - 분열 통치	민족 말살 정책 - 황국 신민화 정책			
법적 근거	보안법	치안유지법	사상범에 대한 보호 관찰령 / 예비 구금령			
경제적 수탈	[재물 조사] 토지 조사 사업	[생산성 향상] 산미증식 계획	[산업 고도화] 중화학 공업 남면복양 정책 농업진흥정책	병참기지화 정책 (국가총동원령)		
기타	임업령 - 임야조사산업 광업령 어업령 전매제 실시	회사령 철폐(신고제)	-	인 적 수 탈	징용제 지원병제	징병제 학도지원병제 정신대근무령
	회사령(허가제)	관세 철폐 신은행령	-		물 적 수 탈	금속 공출 미국 공출(식량 배급제)

# [Theme] 항일 운동 총정리

구분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국내	항일운동	[북벌주의] 독립의군부, 민단조합 [공화주의] 대한광복회 [교사/학생] 송죽회, 기성단, 자립단	천마산대, 보합단, 구월산대			-	-	
	실력양성	-	민립대학설립운동(1922) - 이상재 물산장려운동(1923) - 조만식 문자보급운동(1929~1934) - 조선일보			브나로드운동(1931~1934) - 동아일보 주도	-	
	민족운동	3.1운동	[동맹휴학/만세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1929)			-	-	
	사회운동	-	조선민흥회, 정우회선언 → 신간회 → 근우회			신간회 해소(1931), 근우회 해체	-	
	계급운동	-	조선노동공제회 → 조선노동총동맹 → 조선농민/노동자 총동맹 [농민] 경제투쟁 위주   신안압태도 소작쟁의 [노동자] 경제투쟁 위주   원산총파업(1929) [백정] 신분해방+민족해방   조선형평사(1923)			[농민] 혁명적 농민 조합, 일제 경찰과 직접 충돌 [노동자] 혁명적 노동조합, 노동쟁의 격화 [백정] 회원 경제적 권익운동으로 퇴행	-	
	계층운동	-	[청년] 조선청년총동맹(1924) [소년] 천도교 소년회(1921) - 어린이날 제정, <어린이> 창간 [여성] 조선여성 동우회, 근우회			-	-	
국외	중국	[상해] 동계사, 신한청년당	[의열단] 김원봉,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 황포군관학교 [한국 노병회] 김구 주도, 1만 군사 양성 목표 [북경군사통일 촉성회] 신채호, 박용만, 무장 투쟁 노선 [재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 이회영, 신채호, 아나키즘			만주사변 한중연합작전	[민족혁명당]조선민족전선연맹 / 조선의용대 [한국국민당]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임정 계열]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 조선독립동맹 호기장전투, 반소탕전
	만주	[서간도] 경학사, 부민단 [서간도] 신흥강습소 [북간도] 간민회, 중광단 [북간도] 대한국민회 [북만주] 한흥동	[서간도] 광복군사령부 [서간도] 서로군정서 [북간도] 북로군정서 [봉오동 일대] 대한독립군	봉오동전투 훈춘사건 청산리전투 간도참변 대한독립군단	통의부 3부 수립 미쓰야협정 2부 성립	쌍성보전투 대전자령전투 ----- 영릉가전투 홍경성전투	[동북항일연군] 조국광복회	-
	러시아	[1910년] 13도 의군 [전기] 성명회, 권업회, 광복군정부 [후기] 전로한족회중앙회, 대한국민의회	-	자유시참변	-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	-
	미주	[하와이] 대한국민회 [하와이] 대조선국민군단 [멕시코] 승무학교	-			-	-	-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결성	대통령제 → 국민대표회의 → 국무령제 → 집단지도체제			한민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 중국 국민당과 함께 이동	주석중심제 → 주석,부주석중심제 국내 진공작전 계획 수립	

# [Theme] 주요 지명 / 항일 의거 / 한중연합군

주요 지명		
지역	내용	
중국 내륙	텐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선사</li> </ul>
	상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한청년당, 동계사(대동단결선언)</li> <li>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본부(1919)</li> <li>황포군관학교</li> <li>윤봉길 의거</li> </ul>
	난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혁명간부학교(1932) - 의열단</li> <li>민족혁명당(1935)</li> <li>대한민국 임시정부 3대 본부(1937)</li> </ul>
	한커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의용대</li> </ul>
	옌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독립동맹 → 조선의용군(1942)</li> </ul>
	충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민국 임시정부 후기 본부(1940)</li> </ul>
	삼원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간도 : 경학사, 부민단, 신흥무관학교</li> </ul>
만주	북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정촌, 명동촌</li> <li>서전서숙, 명동학교</li> <li>간민회, 중광단, 대한국민회</li> </ul>
	밀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만주 : 한흥동</li> <li>대한독립군단</li> </ul>
	훈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훈춘 사건 조작(1920)</li> </ul>
	블라디보 스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li> <li>전로한족회중앙총회, 대한국민의회</li> </ul>
러시아	자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시(스보보드니) 참변</li> </ul>

항일 의거				
의사, 열사	소속	의거	지역	연도
나철 오기호	(대중교)	을사5적 암살단 조직	-	1907
장인환 전명운	-	스티븐스 사살	샌프란시스코	1908
안중근	-	이토 히로부미 사살	하얼빈	1909
이재명	-	이완용 암살기도 (실패)	명동	1909
강우규	-	사이토 총독 암살 기도	남대문	1919
박재혁	의열단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	1920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	1921
김익상	의열단	세관 부두에 일본대장에게 폭탄 투척(오성륜)	상하이	1922
김상옥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	1923
김지섭	-	일본 동경궁성 폭탄 투척	동경	1924
나석주	-	동척 폭탄 투척	-	1926
이봉창	한인애국단	일본 국왕 폭살(실패)	동경	1932
윤봉길		전승기념식 폭탄투척	상해	
조명하	-	일본국왕의 장인 사살	타이완	1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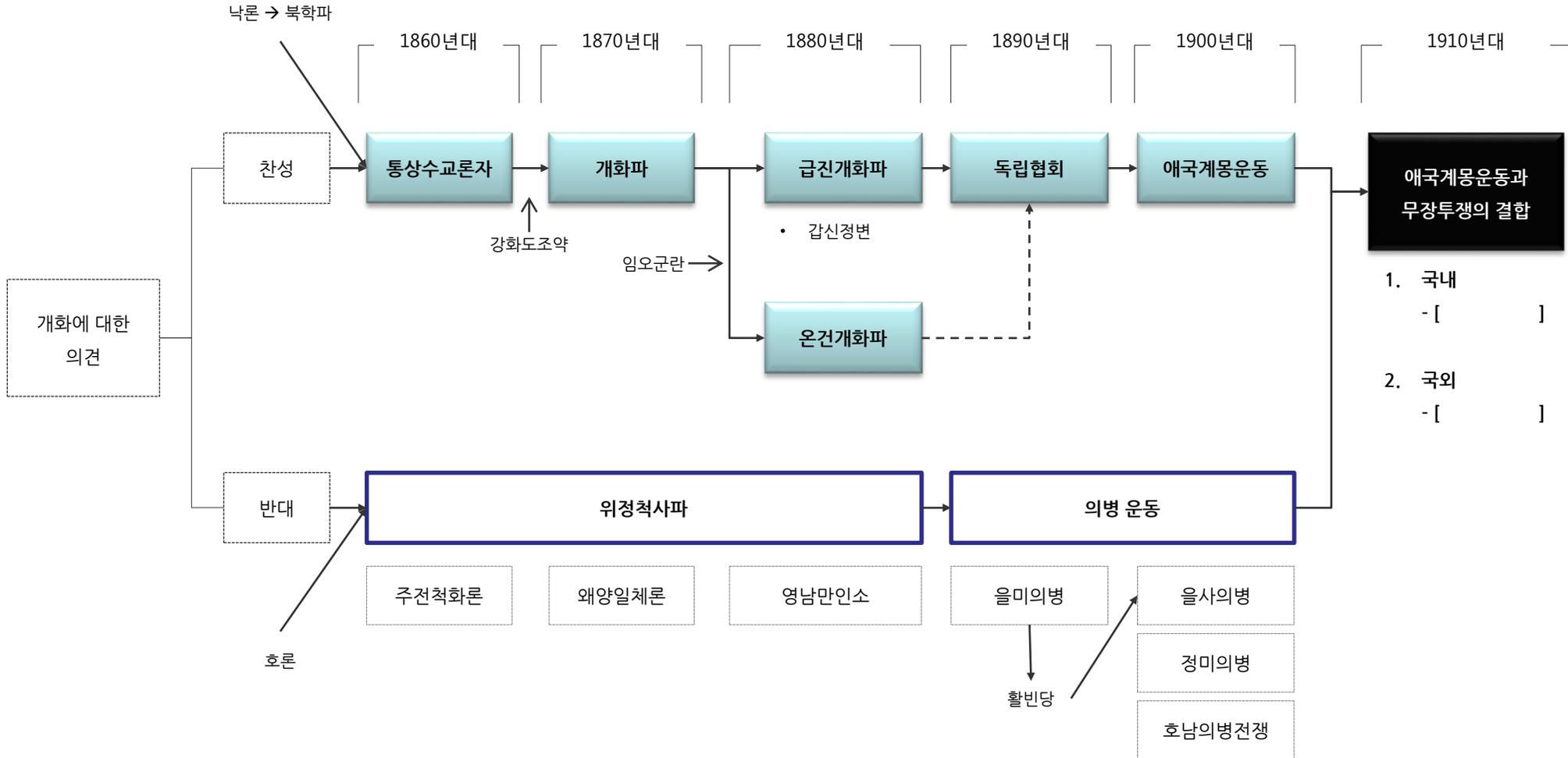
한중연합군		
한국군	중국군	연합전투
조선혁명군	중국 의용군	영릉가전투 흥경성전투
한국독립군	중국 호로군	쌍성보전투 대전자령전투 사도하자전투
동북항일연군	중국 공산당 유격대	(보천보 전투)
조선의용군	중국 팔로군	호가장전투 반소탕전
한국광복군	중국 국민당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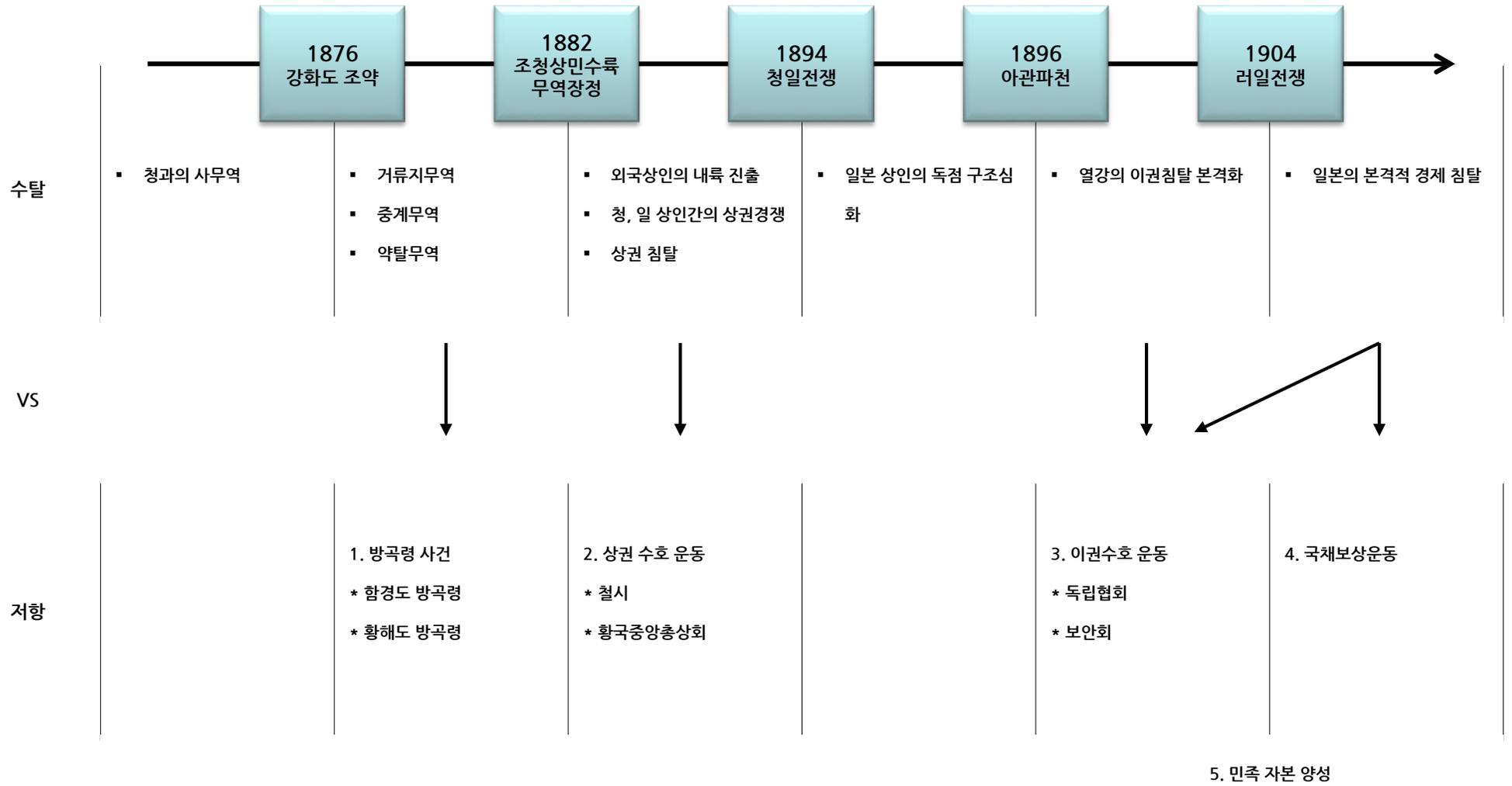
# [Theme] 근현대의 주요 법령

구분	보호국 시기 (애국계몽운동 시기)	일제 시대					미군정 시기 (1945~1948)	제헌의회 (1948~1950)
		1910년대	1920년대	만주 사변 이후 (1931년 ~)	중일전쟁 이후 (1937 ~)	태평양 전쟁 이후 (1941 ~)		
형벌/ 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안법(19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태형령</li> <li>경찰범 처벌 규칙 (1912)</li> <li>범죄측결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안유지법(19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상범보호관찰령 (193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상범예비구금령 (194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민족행위처벌법 (1948)</li> </ul>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령(1910)</li> <li>삼림령(1911)</li> <li>어업령(1911)</li> <li>토지조사령(1912)</li> <li>광업령(19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령 철폐(1920)</li> <li>관세 철폐(1923)</li> <li>신은행령(192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진흥령(193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곡공출제</li> <li>식량배급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곡자유화정책</li> <li>일부 귀속 재산 불하</li> <li>귀속농지토지개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개혁법(1949)</li> <li>귀속재산처리법(1949)</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립학교령(1908)</li> <li>학회령(1908)</li> <li>출판법(19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교육령(1911)</li> <li>사립학교규칙(1911)</li> <li>서당규칙(191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차 교육령(19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차 교육령(193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학교령(1941)</li> <li>4차 교육령(194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3-3-4교육체제</li> </ul>	
문화/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교의 선포예관한 규칙(1906)</li> <li>신문지법(19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찰령(1911)</li> <li>포교 규칙 제정(1915)</li> <li>경학원 규정(1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균관 폐쇄</li> <li>- 경학원 설립</li> </ul> </li> <li>고적및유물보존규칙 (19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민사령(창씨개명, 1939)</li> <li>조선영화령(1940)</li> </ul>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군 특별 지원병령 (1938)</li> <li>국가총동원령(1938)</li> <li>지원병제(1938)</li> <li>국민징용령(193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도지원병제(1943)</li> <li>징병제(1944)</li> <li>정신대근무령(1944)</li> </ul>		

# [Theme] 애국계몽운동과 무장투쟁운동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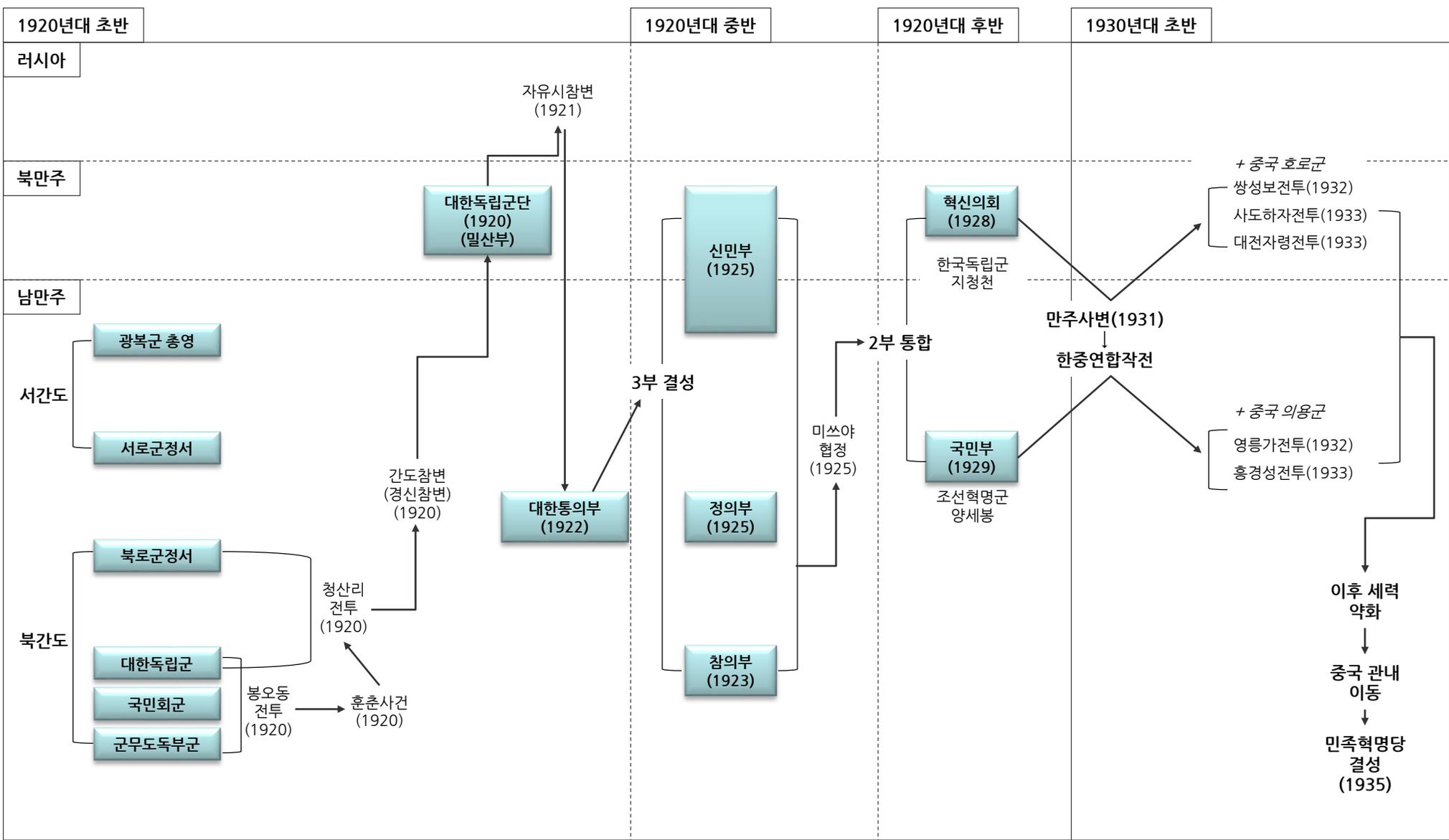
# [Theme] 개화기 경제사 개괄



# 1920년대의 국외 무장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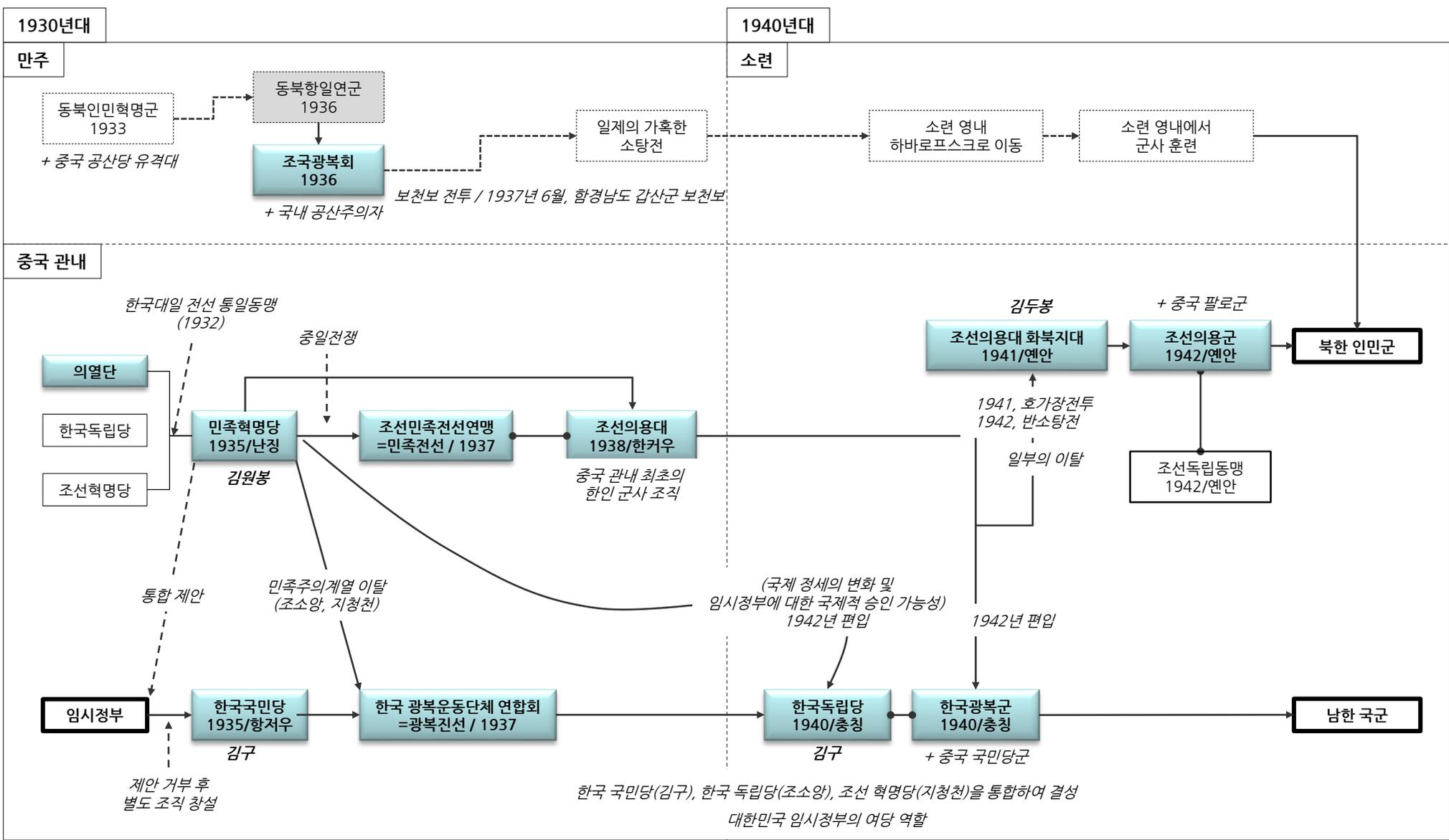
2005 수능

2010 수능



■ (1) 양세봉 주도의 조선혁명군은 중국 팔로군과 함께 화북 지방에서 항일 작전을 수행하였다. [ O | X ] (2) 간도참변과 쌍성보전투 사이, 한국독립군이 조선의용대에 참여하였다. [ O | X ]

# 1930~40년대의 국외 무장 독립 전쟁



# [Theme] 근현대사의 주요 교육기구

구분	개화기	갑오개혁		대한제국	애국계몽운동기
		2차 개혁	을미 개혁		
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문학(1883)</li> <li>육영공원(1886) - 최초 근대적 관립학교</li> <li>유교를 국민교육의 근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균관 재정비</li> <li>- 서당을 국가적 초등교육기관으로 발전 시도</li> </ul> </li> <li>농무학당 설립 - 서양식 농업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아문 설치</li> <li>교육입국조서 반포</li> <li>한성사범학교 설립</li> <li>외국어학교 관계 반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학교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성중학교(1900) : 최초의 중등교육 기관</li> <li>실업학교 설립- 의학교, 상공학교, 광무학교</li> <li>광무개혁 - 유학생 파견</li> </ul>	
사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학사(18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근대적 교육, 덕원부 주민 모금</li> </ul> </li> <li>선교사의 학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재학당 : 1885, 아펜젤러</li> <li>- 이화학당 : 1886, 최초 근대적 여성교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흥화학교(189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립학교 설립 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0년대까지 공식인가 학교 수 : 2,000여개</li> <li>- 서전서숙(1906, 이상설, 북간도 용정춘)</li> <li>- 보성학교(1906, 이용익)</li> </ul> </li> <li>신민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성학교(1907, 평양)</li> <li>- 오산학교(1907, 평북 경주)</li> <li>- 신흥학교(1911, 이회영, 서간도 삼원보)</li> </ul> </li> </ul> <i>cf. 사립학교령(1908)</i>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 : 소학교(6년) / 보통학교(4년)</li> <li>중등 : 중학교(4년) / 고등보통학교(4년)</li> <li>성균관 폐쇄 → 경학원 설립(19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 : 소학교(6년) / 보통학교(6년)</li> <li>중등 : 중학교(5년) / 고등보통학교(5년)</li> <li>경성제국대학 설립(192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 : 심상소학교(통합, 6년)</li> <li>중등 : 중학교(5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 : 국민학교(1941)</li> <li>중등 : 중학교(4년)</li> </ul>
민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량서당</li> <li><i>Cf. 사립학교 규칙, 서당규칙</i></li> <li><i>Cf. 비밀결사</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죽회 : 평양 송의여학교 출신</li> <li>- 기성단, 자립단 : 대성학교 출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립대학 설립운동 전개(이상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교육회(1920)</li> <li>- 민립대학 기성준비회(1922)</li> </ul> </li> <li>조선여자교육회(1920)</li> <li>조선교육회(1923, 이상재)</li> </ul>	-	-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간도 :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li> <li>북간도 : 서전서숙, 명동학교</li> <li>멕시코 : 승무학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혁명간부학교(의열단, 1932, 난징)</li> </ul>	-

미군정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식 6-3-3-4 체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 의무 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년대 : 국민교육헌장 제정(1968)</li> <li>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사교육 강조 / 국민정식교육 강화</li> <li>- 중학교 및 고등학교 무시험 제도 도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윤리교육 강화</li> <li>과외 전면 금지, 대학 입학 본고사 폐지</li> <li>대학 졸업정원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학교 → 초등학교 명칭 변경</li> <li>수학능력시험 제도 실시</li> </ul>

# [Theme]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역대	대통령	재임	임기	공화국	개헌	정체	특징		직선 / 간선	여당
1	이승만 (12)	48-52	4년	제 1	제헌	대통령 중심제	부 통 령	이시영 부통령	간선(국회)	대한 독립 축성 국민회
2		52-56			1차 - 발췌개헌 / 2차 사사오입개헌			양원제(미실시)	직선	자유당
3		56-60			-					
4	윤보선	60-62	6년	제 2	(3차 개헌) 4차 개헌	내각책임제	양원제(민의원, 참의원)		(장면 국무총리 실권)	민주당 → 신민당
5	박정희 (16)	63-67		제 3	5차 개헌	대통령 중심제	-	직선	민주당	
6		67-71			6차 개헌 - 삼선 개헌					
7		71-72	-							
8	최규하	72-78	?	제 4	7차 개헌- 유신 헌법 - 긴급조치권	-	-	간선 (통일주체국민회의)	무소속	
9		78-79			-					
10		79-80			-					
11	전두환 (8)	80-81	7년	제 5	8차 개헌	대통령 중심제	-	간선 (통일주체국민회의)	민주정의당	
12		81-88			9차 개헌 - 6월 항쟁					간선 (대통령선거인단)
13	노태우	88-93	5년	제 6	-	-	직선제	민주당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14	김영삼	93-98		문민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15	김대중	98-2003		국민의					새천년민주당	
16	노무현	2003-08		참여					열린우리당 → 대통합민주신당 → 통합민주당	
17	이명박	2008-13		?					한나라당	
18	박근혜	2013~18		?					새누리당	

# 통일 정책(요약편)

통일 정책 비교		
	남한	북한
명칭	한민족공동체 통일책	고려민주연방공화국案
기본 개념	연합제	연방제
형성	1980년대 초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전두환)	1960년대 (4.19 이후)
구체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1989 / 노태우)	[ 고려연방공화국 ] 남북연방의 명칭 구체화 (197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1980년)
수정	공동체 3단계 통일안 (1993 / 김영삼)	?
통일 과정	1. 화해, 협력 단계 2. 남북연합 단계 - 연합헌장 채택 - 연합기구 운영 3. 통일 국가 단계 - 국민투표로 확정 - 총선거 실시	1. 남한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 철수 2. 고려민주공화국 수립 - 최고연방회의구성 - 연방상설위원회
과도 체계	남북 연합	없음
최종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특징	민족 통일 우선 (민족통일→국가통일)	국가 통일 우선 (국가통일 → 민족 통일)
상호 인정	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 상호 유사성 인정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	

구분		정책기초	주요 사항	최초사항	민간 활동
1950년대	이승만	북진통일론	-	-	-
1960년대	장면정부	UN감시하 남북총선거	-	-	남북학생회담, 중립화 통일론
	박정희		-	-	-
1970년대	박정희	先경제건설 後통일	1차 남북적십자회담(1971)	최초의 민간 회담	-
			7.4남북공동성명(1972)	최초의 당국자간 합의	-
1980년대	전두환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	-	-
			2차 남북적십자 회담 재개(1985)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	-	남북학생회담, 문익환, 임수경
1990년대	노태우	-	남북고위급회담(1990)	최초의 고위급 회담 (국무총리)	-
			남북한UN동시가입(1991)	-	-
			남북기본합의서(1991)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	-
			한반도비핵화 선언(1992)	-	-
2000년대	김대중	햇볕 정책	한민족 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안(1993)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정부)	(최초의 정상회담 불발)	-
			금강산 해로관광(1998)	최초의 북한 민간 관광	-
2000년대	노무현	햇볕 정책 승계	남북 정상 회담(2000) → 6.15남북공동선언 → 이산가족 서신 교환(2001)	최초의 정상회담 최초 이산가족 서신교환	-
			금강산 육로관광(2003) 2차 남북 정상 회담(2007)	-	-

# [Theme] 근현대사의 경제적 흐름

## 근대 사회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1890년대	19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수교 거부 정책</li> <li>* 양전사업 : 은결 색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도 조약 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지통상권</li> <li>* 청일 상인의 상권 경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일전쟁 : 일본상인 독점 체제</li> <li>* 아관파천 : 열강의 이권 침탈 본격화</li> <li>* 양전사업 : 지계 발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일전쟁 : 일본 독주 체제</li> <li>* 일본의 토지 침탈, 이권 침탈</li> </ul>

## 일제 시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미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조사 사업</li> <li>* 회사령</li> <li>* 삼림령, 어업령, 광업령</li> <li>* 전매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미증식 계획</li> <li>* 회사령 철폐</li> <li>* 관세 폐지</li> <li>* 신은행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진흥 운동</li> <li>* 국가총동원령 : 지원병제, 징용령</li> <li>* 미곡 공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동원 체제 확고화 : 지원병, 징병</li> <li>* 전쟁 물자 공출</li> <li>* 전시 복장 : 국민복, 몸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속 농지 소작료 인하 : 3:7제</li> <li>* 귀속 농지에 대한 토지 개혁(1948.3)</li> <li>* <b>미국 자유화 조치</b></li> </ul>

## 현대 사회

제헌의회	1950년대 (이승만)	장면 정부	1960년대 박정희	1970년대 박정희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속재산 처리법</li> <li>* 농지개혁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속 재산 본격 불하</li> <li>* 농지개혁 : 지가증권 발행</li> <li>* 미국 원조 : 삼백 산업</li> <li>* 잉여농산물 : 대충자금</li> </ul>	<p>경제개발5개년계획 입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차 경제개발 계획</li> <li>* 경공업 위주</li> <li>* 화폐 개혁</li> <li>* 저곡가, 저임금정책</li> <li>* 간호사, 광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지대 설치</li> <li>* 새마을 운동(1970)</li> <li>* 3,4차 경제개발 계획</li> <li>* 중화학공업 위주</li> <li>* 수출 100억 달성</li> <li>* 1, 2차 오일쇼크</li> </ul>	<p><b>* 자본 자유화 정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실명제</li> <li>* UR → WTO → OECD</li> <li>* IMF 구제 금융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자유주의 정책</li> <li>* 구조조정 실시</li> <li>* 노동 유연화</li> <li>* 벤처 산업</li> <li>* KTX개통</li> </ul>

# [Theme] 근현대사의 언론 관련 주요 내용

## 근대 사회

개항 이후	대한제국기	애국계몽운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성순보 : 최초의 근대적 신문(1883~1884)</li> <li>한성주보 : 최초의 국한문 혼용(1886~1888), 최초의 상업광고</li> <li>독립신문(1896~1899) : 최초의 민간신문, 순한글판+영문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황성신문(1898~1910) : 국한문 혼용, 구분신참, 시일야방성대곡</li> <li>제국신문(1898~1910) : 순한글, 서민층 및 부녀자 신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매일신보 : 순한글→국한문 혼용, 항일, 국채보상운동</li> <li>만세보: 천도교 기관지, 혈의 누 연재</li> <li>경향신문 : 천주교기관지</li> <li>해조신문(연해주), 신한민보(미국)</li> <li>신문지법 제정(1907)</li> </ul>

## 일제 시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박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일보, 동아일보 창간(1920) - 사전검열 → 텅 빈 지면의 신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일보 일장기 말소사건(1936) - 손기정 마라톤 관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1940)</li> </ul>

## 현대 사회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 매일신보 필화 사건(1955)</li> <li>경향 신문 폐간(1959)</li> <li>신문 발행 허가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보안법 개정 : 경향신문 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적 TV방송 송출/FM방송 시작</li> <li>프레스카드제 실시(1972)</li> <li>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1974)</li> <li>언론자유수호운동(동아, 조선)(19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론통폐합(1980 - 허문도 주도)</li> <li>언론인 강제 해직(1980, 1900명)</li> <li>언론기본법 제정(1980)</li> <li>보도 지침 발행</li> <li>프레스 카드제 재실시</li> <li>컬러TV 보급(19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론기본법 폐지</li> </ul>